

2018-19

Rotary
District 3650

NEW HISTORY



세상에 감동을
BE THE INSPIRATION



초심으로 기적을
BACK TO THE BASICS

2018 8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세상은 다 함께 힘을 합하여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창조적
변화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Together, we see a world where people unite and
take action to create lasting change-across the
globe, in our communities, and in ourselves.”

—Rotary Vision statement

- 로타리 사회적 공헌기업 스타키그룹 · 체리쉬
- 숨은 리더들의 숨은 이야기 7지역 대표 이영석
- 자랑스런 로타리안 시리즈 1 前RI회장 이동건

로타리서울 매거진은 봉사활동을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원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로타리 서울

RI District 3650 Governor, Saeho David Chang

ROTARY SEOUL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들...

‘돈 안 받는 의사’

지역사회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밥 푸는 교수님’

평일이면 대학 강단에 서지만 주말이면 무료급식소를 찾아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합니다. 작은 실천이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연탄 배달하는 CEO’

겨울이 되면 정장을 벗고 연탄 지게를 집니다. 한 분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을 기부하고, 나눕니다. 모두가 함께 따뜻한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는 모두 **로타리안** 입니다

로타리안의 비전(강령)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사업 활동의 기초가 되도록 고취하고 육성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힘써 행하는데 있다.

첫째,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우의 범위를 넓힌다.

둘째, 사업과 전문 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로타리안 각자는 자기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직업의 품위를 높인다.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 생활이나 사업 및 사회생활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결합된 사업인과 전문 직업인들은 세계적 우의를 통하여 국제 간의 이해와 친선과 평화를 증진한다.

로타리안의 원칙(네가지 표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① 진실한가? ② 모두에게 공평한가? ③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④ 모두에게 유익한가?

Rotary
District 3650



국제로타리 3650지구는 6만 5천 명으로 형성된 한국의 19개 지구 중 최초의 지구로서 연 20억 원 규모로 200여 개의 봉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3650지구는 매년 국제 교류 기부와 청소년 지원 사업, 빈곤 국가 지원 등 다양한 사회봉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6대 초점 분야

① 평화 및 분쟁 예방/해결 ② 질병 예방 및 치료 ③ 수자원 및 위생
④ 모자 보건 ⑤ 기본 교육과 문해력 ⑥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로타리안이
되는 법

3650지구본부 연락처 Tel 02 707 3650

www.rotary.or.kr E-mail rotary3650@daum.net | Designed by GNP LINK / www.gnplink.com



로타리3650을 검색하세요

국제로타리 소개

우리 로타리는 혁신을 통해 이 세상의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적용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회원으로 보유한 단체이다. 우리 회원들은 소아마비와 기타 질병을 퇴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해력을 증진할 뿐 아니라 평화를 구축하고자 매년 수백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한다. 또한 세계 전역에서 활동하는 120만여 회원들이 전개하는 봉사 노력을 통해 우리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의 영향력을 극대화한다.



국제 로타리 3650지구는 현재 78개 클럽과 2,1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20여억 원 규모로 200여 개의 봉사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3650지구는 매년 국제교류 기부와 청소년 지원사업, 빈곤 국가 지원 등 다양한 사회봉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로타리 강령 (The Object : Rotary)

로타리의 목적은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사업 활동의 기초가 되도록 고취하고 육성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힘써 행하는데 있다.

첫째,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우의 범위를 넓힌다.

둘째, 사업과 전문 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로타리안 각자는 자기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 할 수 있도록 직업의 품위를 높인다.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 생활이나 사업 및 사회생활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결합된 사업인과 전문 직업인들은 세계적 우의를 통하여 국제간의 이해와 친선과 평화를 증진한다.

● 네 가지 표준 (The Four-Way Test)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1. **진실한가?** Is it the TRUTH?
2. **모두에게 공평한가?** Is it FAIR to all concerned?
3. **선 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Will it build GOODWILL and BETTER FRIENDSHIP?
4. **모두에게 유익한가?** Will it be BENEFICIAL to all concerned?

로타리안이 되어야 하는 이유

- **직업적 유대 강화** | 로타리는 사업과 전문 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각자 자기 직업을 통해서 봉사한다.
- **봉사의 기회** | 로타리안들은 국제, 지역사회 차원에서 봉사 활동으로 보건의료, 기아와 빈곤 추방, 문맹 퇴치, 재해 구호, 환경정화 등을 수행한다.
- **자아 성장 및 개발** | 회원들은 로타리를 통해 자아 성장 및 개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
- **친목** | 1905년에 창립된 가장 중요한 이유이며, 오늘날 전 세계에는 200여 국가에 34,443개 로타리 클럽이 있다.
- **문화적 다양성** | 로타리클럽은 인종이나 정치, 언어,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문화가 개방되어 있다.
- **훌륭한 시민의식** | 클럽들간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은 봉사화 교류의 수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 **세계이해** | 로타리 회원들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이해하고, 평화 촉진은 로타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 **즐거움** | 각 로타리클럽과 지구는 회원들의 개인 생활이나 공적 생활에서 벗어나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을 제공한다.
- **가정 기반** | 로타리는 세계 최대의 청소년 교환과 연구단 교환, 장학금 프로그램을 스폰서 한다.
- **윤리적 환경의 조성** | 로타리안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 네가지 표준을 실천한다.

로타리안이 되는 법

많은 사람들이 로타리 가입하기 페이지를 통해 가입에 대한 관심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문의가 특정 클럽이나 지구에 배정되면 해당 클럽 혹은 지구리더에게 이를 알리는 공지 이메일을 발송됩니다. 이메일과 문의 관리 페이지를 통해 문의 내역을 자주 확인하세요. 새로운 회원들이 연락을 기다립니다.

3650지구본부 연락처 : Tel 02 707 3650 / E-mail rotary3650@daum.net

신청하시면 신속하게 접수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CONTENTS

2018 Aug



RI 이사회는 새로운 비전 선언문(Vision statement)을 채택하였다.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세상은 다 함께 힘을 합하여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창조적 변화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Together, we see a world where people unite and take action to create lasting change-across the globe, in our communities, and in ourselves.”

메시지

RI회장 메시지	05
8월 총재 메시지	06

특집

장세호 총재 취임, 취임사, 지구운영 방향	08
로타리 사회적 공헌기업 - 스타키그룹, 체리쉬	24
숨은 리더들의 이야기 - 이영석 7지역대표	32
자랑스러운 로타리안 시리즈 1 - 이동건 前 RI회장	34

뉴스

지구소식	36
클럽 회장 이취임식	44
회원동경	50
신세대소식	52

봉사

캄보디아 초등학교 개보수 사업	56
로타리 에세이 - 장충식 전 총재	58
RI3650지구, (사)K문화독립군과 MOU체결	61

회원증강

회원증강을 하는 목적과 방법	64
회원증강 클럽사례	68
- 서울RC, 한성RC, 한양RC, 서울무악RC	
3650지구 18-19 회원증강 현황과 목표	74
신입회원과 추천 유공 로타리안	78

재단기부

로타리재단: 우리와 함께 - 윤영석 로타리재단 전 이사	80
로타리재단에 기부를 원하신다면!	84
클럽별 재단기부 현황 및 7월 기부자 소개	86

리더십

ROTARY PR - 월간 리더스 8월호 장세호 총재 인터뷰	92
리더십칼럼 - 링컨의 향기.. 그가 사랑받는 이유	98

교육

안중근 의사의 삶을 통해 본 참된 리더십	102
로타리 지식칼럼 - 네가지 표준의 유래	104

안내

3650지구 18-19년도 주요일정 계획안	110
18-19년도 로타리안 분담금 안내	112

발행인 총재 장세호 **편집위원장** 황순신

편집위원

사무총장 김 중 **사무부총장** 한태숙, 박윤희, 김재철, 정한용

사무국장 김정호

지역대표 한태숙, 최경순, 황순신, 박상진, 연기영, 강무진, 이영석, 박현영, 남궁근, 김학자

발행처 국제로타리 3650지구

주소 03169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02, 203호

Tel 02 707 3650 **Fax** 02 702 3650 **E-mail** rotary3650@daum.net

발행일 2018년 8월 24일 **편집디자인** (주)지엔피링크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회원, 클럽에서부터 감동을!



배리 라신(Barry Rassin)
국제로타리 회장(2018-19)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집에 가서 가족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부의 필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봉사일 때 우리는, 프로젝트나 계획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속가능한 혜택을 주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혜택을 주는 활동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집’부터 제대로 돌봐야 합니다. 로타리안으로서 이는 스스로 로타리의 원칙을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네 가지 표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면밀한 계획으로 우리의 임팩트를 극대화하고 우리의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적극적인 회원을 확보함으로써 우리의 장기적 미래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원은 지난 20년 동안 120만 명에 정제되어 있었습니다. 회원 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서, 회원들은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나 동기가 결여된 클럽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클럽들은 우리가 글로벌 차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나 로타리재단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어떻게 참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회원의 대다수는 여전히 남성이며, 봉사하려는 여성들이 기꺼이 선택하는 단체가 되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회원을 기반으로 한 단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길 원한다면 회원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단지 예비회원을 클럽에 초청하는 것뿐 아니라 그가 클럽에서 환영받는지, 그리고 클럽이 그에게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클럽 모임에서 서성이 누군가를 발견하면 그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그가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예비회원이 특정한 로타리 프로그램에 열정을 갖고 있다면, 클럽이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혹은 참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역사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됐다면 정기모임에서 꺼내 놓으십시오. 강력하고 적극적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단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안에서부터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

소중한 순간을 만끽하세요

제110차 로타리 국제대회에서 배리 라신 2018-19 RI 회장과 함께 잊지 못할 감동과 우정 그리고 즐거움의 한 주를 경험하세요. 세계 각지에서 모인 동료 참가자들과 연결을 이룩하고 영원히 기억에 남을 소중한 순간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3~27일 사이에 등록하시면 US\$350*의 특별 할인가가 적용됩니다.

RICONVENTION.ORG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세요

*US\$350 할인가를 적용받으려면 2018년 6월 23~27일 내에 등록비가 완납되어야 합니다. 모든 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로타리 국제대회
독일 함부르크 2019년 6월 1~5일

다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려면...



장세호 총재
국제로타리 3650지구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취약한 상황에 있다 할 지라도, 만약 우리가 방향만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우리보다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보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그 어느 누구 보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에 먼저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로타리가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 위해 선택해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목표와 목적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목표는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인위적으로 그리고 주로 단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정표(milestone)와도 같은 것입니다. 즉 목표는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어야 하지만 우리는 목표를 목적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의 목적은 사막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오아시스는 찾았으나 결국 사막은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들 자신과 조직의 내부적 상황에 몰입되어 다시 말해 창문에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에 도취되어 창문 밖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마치 기차를 타고 가면서 창문 밖의 아름다운 풍경은 보지 못하고 기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다 목적지까지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세기동안 우리 로타리는 엄청난 봉사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47억불의 봉사금을 만들었고 인도주의적 봉사를 위해 37억달러를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90%이상을 실제 봉사에 투입한 세계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은 봉사조직으로서 지금까지 소아마비의 경우에도 발병률을 99.9% 감소시킨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17년도 회기에도 지구보조금과 글로벌보조금을 합해 9천9백만 달러를 200여 국가에 있는 120만명의 로타리인들이 주관하는 1,750개 프로젝트를 통해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로타리는 엄청난 봉사의 스케일을 갖춘 조직입니다.

반면, 현재 우리의 상황은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매해 목표달성을 위한 숫자게임에 휘말려 회원증강과 재단기부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끊임없는 회원감소와 쇠약해지는 재단기부로 회원들의 로타리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젊

은 세대들을 영입시키는데 있어 정확한 소통이 잘 이루어 지지도 않을뿐더러 그들이 원하는 매력포인트들을 제공할 수 없는, 시대적으로 걸맞은 매력 있고 유익한 플랫폼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악순환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과 조직이 이러한 악순환에 빠졌을 때 문제의 본질과 의미로 되돌아가 해결책을 찾은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행동 이전에 존재가 있고 존재 이전에 가치가 있듯이, 우리는 로타리의 본질적 가치로 돌아가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 가치가 바로 로타리강령과 네 가지 표준이며 이를 통하여 반드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로타리 강령을 살펴보면, 지난 1세기 동안,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우리 로타리안들은 수없이 많은 봉사활동을 해 왔지만 진정한 로타리강령에 써 있듯이 우리가 봉사의 이상을 우리의 모든 가치 있는 사업활동의 기초가 되도록 하는 일에는 소홀히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급한 불부터 꺼야 하듯이 우리는 사회의 아픈 상처에 봉대를 감아주는데 전력을 다 했습니다. 물론 칭찬할 일이지만, 그러나 로타리 강령 즉 우리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증강과 재단기부라는 목표에만 집중하면서 우리 모두가 실제 사회적으로 공헌 전문가들이 되어 기업가는 자신의 기업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조할 수 있는 존경받는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기업으로 만들고,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전에 사회의 소외된 자들을 보호해 주고, 돈을 떠나 사회의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사회적 직업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로타리인들이 해 내야 할 일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사회의 변화이자 우리의 궁극적 방향이자 목적임을 잊어왔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로타리의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답은 바로 나부터 시작하여 로타리강령과 네 가지 표준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작게 시작하여 크게 변했습니다. 마치 작은 암세포가 건강한 청년을 넘어뜨리고, 작은 불꽃이 큰 산을 태우며, 작은 새 한 마리가 큰 점보 비행기를 땅에 추락시키듯이, 또한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바꾸고 작은 참기를 몇 방울이 냉면의 맛을 내듯이,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로타리의 방향을 다시 잡고, 목표보다 목적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 로타리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모든 것이 그렇듯이 로타리에도 눈에 보이는 유형조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조직도 있는 것입니다. 로타리에 무형조직이 바로 진정한 알곡 로타리안들이고 나머지는 아직 로타리안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조직원이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소수의 알곡 로타리안들에 의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힘을 합해 로타리조직 안에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로타리안들이 되도록 교육과 사랑을 통해 그리고 봉사의 실천을 통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히 변화의 팀들을 여기 저기 단기적으로 성공사례들을 만들어 뜨거운 변화의 열풍을 일으키고 변화의 바이러스를 퍼뜨려 변화의 문화가 조직의 모든 곳에 정착되도록 특히 조직의 리더들이 힘을 합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로타리안들은 모두가 사회의 지도자이자 변화의 선구자들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역사는 바로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신념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내가 변해야 로타리가 변하고 사회가 변한다”라는 표어를 만들어 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에 대한 공헌과 사랑 그리고 사회적 연민을 가지고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지름길은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라고 외치며 저 앞에 보이는 높은 산을 향하여 뛰어가야 하겠습니다. 🌟



New Histroy... 세상에 감동을...초심으로 기적을! 장세호 총재 취임

총재 및 클럽회장 이취임식 개최, 330여명 참석



국제로타리 3650지구 장세호 신임총재(서울RC)와 이순동 이임총재(서울무악RC)의 총재 이취임식이 7월 2일(월)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각 클럽 회장, 총무, 지역대표, 지구임원을 비롯하여 윤상구 로타리재단 이사, 채희병 전RI이사, 민병국, 운영석 로타리재단 이사 등 우리 지구 총재단과 장세호 총재의 초청게스트 등 3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중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2018-19년도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기수 및 총재 입장식에 이어 이순동 직전총재의 이임사, 지구기 인계, 총재 배지증정 및 총재 클럽기 이양, 직전 총재에 대한 감사패 증정, 장세호 총재의 취임사, 운영석 로타리재단 전이사와 윤상구 로타

리재단 이사의 축사, 민병국 전 로타리재단 이사의 건배사, 2018-19년도 지역대표와 클럽 회장, 지구임원 등단 및 소개, 가수 강태민 서울소셜비즈니스 위성클럽 회원과 서울SRS 로타리클럽 합창단의 축하공연, '우리는 로타리인'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장세호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지금의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로타리는 지쳐가고, 이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우리가 때로 달리는 기차 속에서 창밖의 풍경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창에 비쳐진 우리들 자신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제는 우리 로타리인들이 스스로 "새로운 역사(New History)"를 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장 총재는 "2018-19년도 지구목표는 로타리 감동을 주는 봉사, 회원 3000명+, 재단기부 100만불, 100% EREY지구, 즉 지구 전 회원들이 평균 100불을 로타리재단에 기부하는 것"이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 클럽발전의 5대 요소인 감동이 있는 봉사, 회원증강, 재단기부, 교육, 리더십을 통한 클럽 활성화와 지구운영 패러다임 변화를 약속했다.

또한 "클럽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 내가 먼저 변해야 로타리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초심으로 3650만의 기적을 만들어 보자."고 당부했다.

운영석 로타리재단 전이사는 축사를 통해 "지난 일년간 패밀리 투게터를 강조하며 가족의 중요성과 회원증강 시스템의 변화를 이끈 이순동 직전총재의 성과와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며, 시대적 변화를 가장 빠르게 느끼는 한국로타리 대표 지구의 위상을 갖고 있는 3650지구가 이러한 시기에 변화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장세호 총재가 이끄는 2018-19년도에 기적의 한해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2018-19년도 회기 동안 장세호 총재와 3650지구를 함께 이끌어 나갈 10개 지역 대표와 클럽 회장들이 함께 로타리 모자를 쓰고, 직책 흉장을 착용하고 함께 등단하여 소개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100여명의 지구임원들도 등단하여 소개의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총재 이취임식은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언론에 보도되며 로타리 홍보에도 큰 몫을 했다. 🌟





August 2018



Rotary 3650



세상에 감동을... 초심으로 기적을

Back to the Basics

炫成 장세호 서울로타리클럽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2018-19)

존경하는 로타리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

국제로타리 3650지구 2018-19년도 신임총재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베풀어 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로타리, 변화를 만들자”라는 테마하에 “Family Together”캠페인을 통해 로타리봉사의 가치를 우리의 가정으로 가져가 가족들과 함께 로타리사역의 범위를 넓히는 의미 깊은 리더십으로 지구를 발전시켜주셔서 이제 제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잘 닦아

주셨음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로타리는 빛에 속한 조직입니다. 생명의 가치와 사랑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비범한 일을 해내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담을만한 훌륭한 조직입니다. 1905년 폴 해리스(Paul Harris)가 우리 로타리를 창립한 후 지난 113년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명을 살려내었고, 절망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로타리는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이라는 꿈과 기회를 주었고,
그들을 살려내어 그들이 각자 인생에
“새로운 히스토리(New History)”를 써 내려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로타리는 수없이 많은 사회적 변화를 일으켜 냈습니다. 전쟁대신 세계평화를 외쳐왔고, 주어진 환경에 낙심하며 절망에 사로잡힌 이들, 질병에 육신이 무너져가 죽음을 기다리는 이들, 가난에 허덕이고 굶주리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르는 이들, 배우고 싶어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이들, 더러운 오염된 물을 마셔야 하며 자립하고 싶어도 도저히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들, 이러한 이들에게 로타리는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이라는 꿈과 기회를 주었고, 그들을 살려내어 그들이 각자 인생에 “새로운 히스토리(New History)”를 써 내려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 로타리 자체가 “새로운 역사(New History)”를 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로타리는 지쳐가고, 이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달리는 기차 속에서 창 밖의 풍경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창에 비쳐진 우리들 자신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새 시대를 향하여 신세대들도 더 많이 로타리안으로 불러들여야 하고, 나아가 우리의 생각의 각도와 초점을 바꿔 우리가 해온 인도주의적 봉사실천을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로타리 시스템과 플랫폼을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게 재건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었으나 아직 가보지 못한 길, 우리가 갈 수 있었으나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여 새로운 길을 트고, 저 높은 “로타리 강령”이라고 하는 산봉우리를 향하여 로타리의 “네 가지 원칙”을 우리들 삶에 실지 적용하면서 로타리 강령대로 봉사의 가치가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에 기초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있는 모든 조직들이 사회적 공헌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또 다시 엔진을 튜업(Tune Up)하고 기어를 바꿔 한 팀이 되어 끈임 없이 질주해야만 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봉사의 대상도 시대적 변화를 감지하면서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그리고 더욱 낮고 보이지 않는 곳에,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으며 다함께 더불어 “초심으로 기적”을 일으켜 우리모두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질주에 앞장서신 분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되시는 각 클럽의 회장님들이십니다.

“클럽이 살아야 지구가 살고 로타리가 삽니다.”

로타리의 주인은 바로 회원이신 여러분들과 클럽입니다. 앞으로 일년 동안 저와 그리고 저와 뜻을 함께한 지구 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 팀이 되어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18-19년도 지구목표는 로타리감동을 주는 봉사, 회원 3000명+, 재단기부 100만불, 100% EREY지구, 즉 지구



전 회원들이 평균 100불을 로타리재단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먼저 클럽 회장님들께서 각 클럽을 활성화 시켜 주셔야 하겠습니다. 회원증강과 탈퇴방지를 위해 클럽활동을 더욱 재미있고 의미있게 이끌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클럽발전의 5대 요소는 감동이 있는 봉사, 회원증강, 재단기부, 교육 그리고 리더십입니다. 저희는 클럽발전을 위해 “지구행사를 위한 클럽활동에서 클럽활성화를 위한 지구지원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은 각 클럽의 회원 수를 유지해 주시거나 증강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초심으로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내가 변해야 로타리가 변하고 사회가 변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로타리강령과 네 가지 원칙을 실천합시다. 우리 로타리는 뚜렷한 가치와 원칙이 있는 아름다운 조직입니다. 그리고 로타리는 차갑고 외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담을 만한 평생우정으로 엮어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변해야 로타리가 변하고 사회가 변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로타리강령과 네 가지 원칙을 실천합시다

다. 우리는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다 함께 힘을 합하여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창조적 변화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클럽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 “내가 먼저 변해야 로타리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

이 두 가치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초심으로 3650만의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믿었던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실망했듯이, 로타리에 실망을 할 때가 있을지라도, 산타클로스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산타클로스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들 자신이 진정한 로타리안들이 되어 다 함께 이 땅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감사합니다. 🙏





BE THE INSPIRATION 세상에 감동을

배리 라신(Barry Rasson)
국제로타리 회장(2018-19)

지금부터 113년 전 로타리가 창립된 이래 로타리의 역할은 세상과 멤버들의 삶 속에서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초창기에 로타리는 멤버들에게 친교와 우정의 기회,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연결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조금 지나서는 봉사활동이 자리잡았고, 로타리가 확대됨에 따라 그 영향력도 늘어났습니다. 이내 우리의 봉사는 로타리재단의 지원을 통해 전세계 수많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삶을 바꿀놓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파트너십을 통해 봉사의 임팩트를 확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수많은 지역 보건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세계 최대의 공공-민간 보건 이니셔티브를 런칭시켰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멤버들이 단순한 친교의 장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에 나서기 위해 로타리를 찾고 있습니다.



로타리는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창립자인 폴 해리스가 꿈꾸었던 대로“지구 모든 곳의 사람들이 자신을 뛰어 넘어 좀 더 큰 존재가 되기 위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날 로타리는 유일하고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열망과 재능을 가진 이들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이 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의 실천이 글로벌 임팩트를 창출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거의 모든 것을 이룩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로타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커졌으며, 세상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막대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로타리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클럽에서조차 어떤 회원들은 로타리 멤버십이 제공하는 기회와 혜택을 전부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로타리 봉사는 사람들의 삶과 지역사회를 변모시킵니다.

진정한 변화를 일구어 내는 더 많은 봉사를 실시하려면, 우리는 로타리 내에서의 우리의 역할, 그리고 세상에서의 로타리의 역할을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 우리의 공공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회원증강을 이룩하고 로타리 봉사를 확대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전 조사와 계획에 시간을 들여 임팩트가 보다 오래 지속되는, 수년에 걸친 대규모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긍정적 변화를 위한 영감이 되어 클럽과 지역사회, 그리고 로타리가 용기와 낙관, 그리고 창의력을 갖고 앞에 놓인 도전을 직면하도록 영감을 일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폴 해리스는“로타리는 평화로운 세상의 축소판이며 각국이 지향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제게 있어 로타리는 모델일 뿐 아니라 영감입니다. 로타리는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그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영감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실천에 나서'세상에 감동'을 주는 길을 제공합니다. ☀

배리 라신(Barry Rassin)

이스트 나소 로타리클럽, 바하마 뉴프로비던



배리 래신 (BARRY RASSIN) RI회장은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보건 및 병원 행정 분야에서 MBA 학위를 받았으며, 바하마에 소재한 아메리칸 칼리지 보건 고위행정가 교육과정 제 1기 펠로우였다.

최근 그는 37년간 재직해 오던 닥터스 하스피털 헬스 시스템에서 은퇴했지만, 자문으로 계속 일하고 있다. 미국 병원 협회 평생 회원이며, 바하마 웰리티 카운슬, 보건교육 카운슬, 고용주 연합회 등 여러 단체의 이사로 활동해 왔다.

1980년에 로타리 활동을 시작, RI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로타리재단 이사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RI연수리더를 역임했고 최근에는 K.R. 라빈드란 2015-16년도 RI 회장의 에이드로 활동했다.

로타리 최고의 영예인 '초아의 봉사상'을 수상했으며 2010년 아이티 지진 구호를 위한 노력에 앞장 선 공로로 다양한 인도주의 표창을 받았다.

부인 에스더 여사와 함께 로타리재단 고액기부자이자 베네팩터이다. 🌟



炫성장세호(張世虎 Seaho David Chang)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2018-19)

학 력

1968 Charles Evans Hughes H.S. (미국 뉴욕고등학교 졸업)
1972 Carnegie-Mellon University B.S. (전기공학 학사졸업)
1973 Columbia University M.S. (컴퓨터사이언스 석사졸업)
1975 Columbia University MBA (경영대학원 마케팅전공)
1978 GE Corp. Financial Management Program (2 years)
(MBA Finance 동급 재무관리과정 : GE Corp. Auditor 감사자격수료)

사회활동

2016 현 한국도형심리상담학회(NRF8B3037) 수석이사
1995 미주 커네티컷 주 한인회 40대 한인회 회장
1995-2000 한국국제교류재단 상임이사(The Korea Society)
대통령 직속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국자문위원
미국 장로교 교단 3개 교회 창립
IBM 재단대표로 성균관경영대학원 개혁프로젝트 고문활동
미국 Ivy League 대학교들, 한국 전경련, 서강대, 연세대 등 특강

주요경력

2012-현재 (주)라이프맥스코리아 회장
2006-2012 BIZ&LIFEMAX (주)비즈앤라이프맥스 회장
2004-2006 CITICO Holdings, Hong Kong, CEO 시티코홀딩스 회장
2000-2005 BIZBANG GROUP USA Chairman 비즈뱅크그룹 회장
1993-2000 IBM CORPORATION, New York 소비자 및 대형컴퓨터본부 부사장
1988-1993 XEROX CORPORATION, Connecticut 본사기획실 전무이사
1985-1988 NYNEX CORP. (전 AT&T), New York 벤처개발 전무이사
1982-1985 ITT TELECOMMUNICATION CORP. NY 텔레컴뮤니케이션 마케팅이사
1975-1982 GENERAL ELECTRIC, Maryland 국제마케팅 과장, 이사

로타리 경력

한국 Zone11-12, 2018-19 총재단 회장
2014-15 서울로타리클럽 회장(100%RFSM, 회원증강 및 봉사 우수클럽상)
2014-15 지구회원개발위원장, 연수위원회 부위원장, 교육위원장
2015-16 지구회원증강위원장
2016-17 지구연수위원장, 지구클럽지원위원장
RI서울국제대회 HOC YLS(Young Leaders Summit) 수석위원장
한국 존11, 12 다수 컨퍼런스 및 간담회 특강연사

로타리 기부 실적

로타리재단 고액기부자 Major Donor Level 1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봉사의 인(1)
RI3650지구 Paul Harris Society(PHS) 회원



소속클럽 : 서울 로타리클럽
입 회 일 : 2011년 7월 1일
현 직 : (주)라이프맥스코리아 회장



2018-19년도 국제로타리 3650지구 운영 방향



세상에 감동을
BE THE INSPIRATION

국제로타리 회장 테마
세상에 감동을
BE THE INSPIRATION

국제로타리 회장 배리 래신(RI President Barry Rassin)
로타리 비전(Rotary Vision Statement):

“Together, we see a world, where people unite
and take actions to create lasting changes, – across the globe,
in our communities and in ourselves.”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다 함께 힘을 합하여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창조적 변화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2018-19년도 지구 슬로건

“초심으로 기적을” BACK TO THE BASICS

로타리 봉사가치의 활성화



“내가 변해야 로타리가 변하고 사회가 변한다”

클럽발전 5대요소



“클럽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

Rotary
District 3650



세상에 감동을
BE THE INSPIRATION

지구목표 (2018-19) ‘즉시 반드시 될때까지’

3000명 + (로타리안들이 많아야 사회가 변한다)

재단기부 총 100만불

(100% EREY, 100% 클럽회장 및 지구임원 PHF,
클럽내 PHS 회원확보, 고액기부자 AKS, 기업기부금)

새로운 운영철학: “초심으로 기적을”

로타리 기본으로 돌아가자 (로타리강령과 4가지원칙)

- 클럽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
(지구 행사를 위한 클럽활동에서 클럽활성화를 위한 지구지원)
- 내가 먼저 변해야 로타리가 변하고 사회가 변한다.
- 지구발전 5대요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
- 모든 공헌자들이 다함께 존경받는 로타리(기부하신 분이나 봉사하신 분 모두)
- 확실한 혜택이 로타리 회원들에게 제공돼야 한다.
- 참 로타리안은 로타리 가치를 가정, 기업, 사회속에서 생활화한다.
- 봉사활동 외에 회원증강과 재단기부는 참 로타리안의 살아있다는 증거다.
- 로타리 행복은 나 자신에게 달렸다.

2018-19 새로운 시도

- 전 회기의 패밀리투게더 캠페인 지속
- 로타리 소셜 엔터프라이즈를 통한 회원증강 및 지구활성화
- 모든 클럽 회장들의 지구운영참여
-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한 문화예술로타리인들의 결집과 활기찬 로타리 활동
- 소통과 화합을 통한 행복한 로타리만들기 운동
- 클럽들의 자매결연 권장
- 로타리 피크닉 데이 개최 (Annual Fellowship & Fun Event)
- 로타리 문화예술 페스티벌 (지역사회와 함께 자금 모금 행사)

지구 인프라구축

- 지구정보 및 운영 시스템 체계 재정립
- 각 위원회별 자원봉사자 결성 및 교육
- 지구 및 클럽관리 시스템 정착
- 지구 및 클럽 정보 방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무장 서비스 재정립

IT 시스템 활용

- 스마트폰 총재월신
- 마이로타리 활성화
- 클럽센트럴로 클럽관리

지구발전을 위한 5대 목표

1. 봉사의 개혁

- 1) 로타리감동을 주는 봉사
- 2) 글로벌그랜트 보조금 100% 활용
- 3) 봉사를 못하고 있는 클럽들을 위한 지구봉사
- 4) 봉사의 대상은 더 낮고 어두운 곳으로
- 5) 물질뿐 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 6) 지혜롭게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 7) 더 넓게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이루면서
- 8) 장기적으로 봉사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게
- 9) 짧은 기르고 로타리의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심으면서

2. 회원증강 및 지구확대

- 1) 지구회원 순증강 1,000명 (총 회원 3,000명+)
- 2) 클럽회원 순증강 % (60 Rule: 회원수+순증강%=60)
예: 40명클럽 20%; 30명클럽 30%; 20명클럽 40%
- 3) 소규모 클럽(20명 이하)을 20명이상 클럽으로!
50명 이상 클럽은 10% 순증강
- 4) 젊은 회원 영입확대: “1 + 1 - 10” Campaign
(한 사람이 10살 어린 한 사람 데려오기 운동)
30세미만 회원 지구회비 면제
- 5) 로타랙트 회원들을 차세대 위성클럽회원으로 100% 전환
(후원클럽 회원들에 의한 RI회비후원; 지구회비면제)
- 6) 여성회원 영입 확대 (총 회원수의 25%에서 30%이상으로)
- 7) 로타리 Social Enterprise 및 기타 신생클럽 (50개+)
- 8) 가족위성클럽 Family Together Campaign 연장
- 9) 젊은세대 순 증강을 위한 지구 인센티브
(40세 미만 새 회원 영입한 회원은 지구회비 면제)
- 10) 클럽회원 수를 유지시킨 클럽을 위한 포상제도 도입
- 11) 회원탈퇴방지를 위한 지구 생명보험제도 도입 고려 중

3. 재단기부 목표: 총 재단기부액: 100만불

- 1) 100% 전회원 EREY 참여: 지구 전 회원 \$100 기부 운동
 - ① 각 클럽회비에 \$100을 포함시켜 연초에 정한다
 - ② 혹은 각 클럽회장이 클럽운영비를 절약하여 각 회원들의 EREY 기부금을 조성한다
- 2) PHF: 구좌
 - ① 지구임원 100% PHF 1구좌
 - ② 클럽회장과 총무 100% PHF 1구좌
 - ③ 연초에 클럽 내에 PHF기부자들을 선정한다
- 3) 폴리오플러스(소아마비 박멸): 각 클럽 참여 유도
- 4) PHS 회원확대: 클럽당 2명 이상
- 5) 지구 고액기부(Major Donor): 30명 (Level 변동포함)
- 6) 아치클럽프 소사이어티(AKS): 2명
- 7) 로타리 Social Enterprise 기업 기부금 독려
- 8) 재단 무 기부 클럽 해소

4. 교육

- 1) 로타리 기본정신과 가치교육
- 2) 클럽 전회원을 위한 주기적 교육프로그램 실시
(예: 매월 주회 초 10분 교육)
- 3) 신규회원 교육 필수
- 4) 로타리 인성교육
- 5) 토론문화 전파를 위한 주기적 토론의 장 마련
- 6) 자원문화 전파를 위한 로타리운영의 변혁
- 7) 로타리 분야별 전문가 양성

5. 리더십

- 1) 클럽내 후계지도자 양성
- 2) 지구 및 클럽 내 멘토, 멘티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활성화
- 3) 클럽회장을 포함한 클럽멘토들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 4) 차별화된 로타리 리더십 트레이닝 프로그램

2018-19 국제로타리 회장 표창 안내



로타리 표창은 로타리의 전략적 우선 순위를 지원하는 특정 활동을 실시한 클럽들을 표창합니다. 클럽은 로타리연도 한 해 동안 표창 목표를 달성하면 됩니다. 로타리는 클럽이 '내 로타리'에서 클럽과 회원정보를 업데이트시키는 한, 해당 클럽의 목표 달성을 대부분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럽은 다른 목표들의 달성도 로타리클럽 센트럴과 같은 온라인 도구를 사용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로타리 표창을 받으려면 클럽은 해당 연도 초에 활동적이고 모범적인 클럽으로서 연도 내내 이러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목표 달성은 2018년 7월 1일자 통계를 기준으로 비교될 것이며, 2019년 7월 1일자 통계가 확정되는 2019년 8월 15일 이후에 표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년에 로타리 표창 목표 외에 1~3개의 추가 목표를 달성한 클럽은 로타리 표창 회장 특별상(Rotary Citation With Presidential Distinction)을 받게 됩니다.

클럽 지원 및 강화

6개 중 최소한 3개 달성 :

- 1명의 회원 순증가를 이룩한다.
- 기존 및 신입회원의 유지율을 유지 혹은 증가시킨다:
 - ▶ 클럽의 회원유지율을 1% 증가시킨다. 혹은
 - ▶ 2017~18년도 클럽의 회원유지율이 90%인 경우에는 이를 유지한다.
- 여성 회원의 순증가를 이룩한다.
- 최소한 회원의 60%가 '내 로타리'를 통해 생년월일을 보고하게 한다.
- 신생 로타리클럽을 스폰서 혹은 공동 스폰서한다.
- 회원들의 직업분류를 검토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직업군을 반영할 수 있게 한다.

인도주의 봉사의 집중 및 확대

6개 중 최소한 3개 달성:

- 로타리 지역사회 봉사단을 스폰서한다.
- 인터랙트 혹은 로타랙트클럽을 스폰서하거나 공동 스폰서한다.
- 연차기금에 회원 1인당 100달러 이상 기부한다.
-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회원 수를 늘린다.
- 로타리의 소아마비 퇴치 노력을 위한 모금 행사나 인식 제고 행사를 개최한다.
- 1개의 초점분야에서 대표적인 사회봉사 프로젝트 혹은 국제봉사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공공 이미지 강화 및 인식 확대

6개 중 최소한 3개 달성:

- 로타리 쇼케이스에 성공적인 클럽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활동 내용과 함께 자원봉사 시간, 모금된 기금 등 구체적 정보를 포함시킨다.
- 로타리 브랜드 가이드라인, 템플릿, 실전에 나서는 사람들 캠페인 자료 등의 자원을 사용한다.
- 클럽 활동과 로타리 스토리를 지역 언론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로타리 동창을 위한 행사를 호스트하고, 로타리가 제공하는 네트워킹 기회를 강조한다.
- 기업이나 지방정부, 혹은 비정부기구와 파트너십을 체결, 혹은 유지하고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한다.
- 청소년 교환 학생이나 라일라 참가자를 스폰서한다.

Rotary Social Enterprise

로 타 리 사 회 적 기 업 01



소리로 전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의 역할

스타키그룹은 국내 보청기 시장점유율 1위와 고객만족도 1위로 업계 리더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단 한차례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가 더욱 특별한 것은 '봉사와 일' 균형 잡힌 삶으로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치매의 발병률을 급격히 높이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난청입니다. 중도 난청의 경우 치매 속도를 2~3배를, 고도 난청은 무려 5배나 발병률이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에 난청 노인들을 위한 보청기 지급이나 청각재활 및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후에 있을 치매노인에 들어갈 어마어마한 비용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투자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후원회 회장이기도 한 심상돈 대표는 장애인을 위한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특히, 발달 장애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 많은 역할을 했다. 뇌전증 지원법에 관한 부분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2017년 4월 14일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며 난청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로타리 사회적 기업을 통해 기업의 이익이 사회에 환원되고, 기업의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CEO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더욱 매력적입니다. 직원들도 김장 봉사, 소리 사랑 캠페인 등 함께 한 부분들이 많지만, 이제는 사회적 기업으로 함께 봉사하고자 합니다.”

지구가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위트 있으면서도 의미심장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지구가 온난화되는 것은 문제지만, 로타리가 온난화되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것 아닐까요?”

스타키그룹의 심상돈 대표와 더불어 임직원들의 따뜻한 행보는 로타리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스타키그룹 대표 심상돈(한양RC)

인류의 건강과 행복,
더 풍요로운 삶,
사람과 사람을
소리로 하나되게



소리로 사랑을
전하는 기업



소리나눔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제 소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원한 꿈을 실현

1996년 창립 이래 오로지 청각 기술만을 연구해 온 스타키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은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보다 자연스러운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원하는 모든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스타키그룹의 7개 자회사는 서로 돕고 협력하여 미래의 역경을 극복하고자 하며, 국내 최초로 보청기 임상연구센터를 개설하여 한국인에게 꼭 맞는 보청기 개발을 위해 고객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 청각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또한 난청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소리사랑 봉사단

스타키그룹은 1998년 미국 본사의 스타키청각재단 (Starkey Hearing Foundation)과 연계하여 스타키 전 임직원으로 구성된 '소리사랑 나누기' 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청력검사, 보청기 무상 지원 등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힘을 모아 함께 하기 위함이다.

- 지역사회 후원
- 사회기부 활동
- 문화 예술 지원
- 글로벌 이웃에게 보청기 기부
- 산학협력 체결 · 교육지원
- 장애인 단체 봉사활동

세계 최초 인공지능 보청기 출시

스타키그룹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스타키 리비오 AI를 선보일 예정이다. 스타키 리비오 AI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면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리비오 AI 사용자는 앱을 사용하면서 건의 사항 또는 불만 사항을 앱을 통해 접수할 수도 있다. 난청 사용자들을 위해 개발된 이 기술은 센서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보내주기도 한다. 🍌



Rotary Social Enterprise

로 타 리 사 회 적 기 업 02

공간에서 전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의 역할

체리쉬는 가구 등 사람이 일상 공간을 디자인하는 기업이다. 공간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생활 방식과 생각, 그리고 삶까지 그려내는 일이기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구와 공간의 상호작용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체리쉬 유준식 회장은 직원에 대한 관심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저를 비롯해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변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업에서 이익을 추구하되 사회에서 얻은 이익을 반드시 환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직원의 복지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준식 회장은 “과거에는 승자 독식, 경영자 독식의 문화였다면, 이제는 직원 및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나눠야 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체리쉬 직원의 복지 강화를 사회로까지 확장시켰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원 사이의 임금 격차에 대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가 건의한 내용은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입법까지 되었다.

“직원이 없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의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역량과 노력이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직원들과 정당하게 나눠야하고, 사회로부터 얻은 그 이윤을 사회와 다시 나눠야 하죠.”

유준식 회장은 그런 의미에서 로타리 사회적 기업이야말로 직원과 나누고, 사회에 돌려주는 봉사라고 생각하고 있다.

“봉사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로타리 사회적 기업은 개인에서 조직으로 봉사의 문화가 전파되고, 함께 고민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총재님이 생각이 확산되면 우리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유준식 회장은 “봉사는 감추는 게 아닌, 감추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봉사는 결코 감춰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체리쉬 유준식 회장과 그의 직원들은 봉사를 통해 인간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체리쉬 회장 유준식(아가페서울RC)

인류의 건강과 행복,
더 풍요로운 삶,
세상과 통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



시그니처 존

체리쉬 시그니처 존은 집에서 음성인식 가구를 사용하는 콘셉트로 실제 안방처럼 제작됐다. 모션 베드와 커튼, 조명 등의 음성인식 기능을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버' 스피커와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음성인식 기능 외에도 가구와 연동된 리모컨과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제어도 체험 가능하다.

시그니처 존은 내 방같이 편안한 곳에 음성인식 가구의 편리함과 재미를 더한 곳으로 고객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되며 앞으로 더 많은 매장에 시그니처 존을 설치할 예정으로 쾌적함을 위해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등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침대의 정의가 다시 정립된 것이다. 이제 침대는 수면을

위한 도구에서 한 단계 나아가 '휴식의 도구'인 것이다. 편안한 수면도 중요하지만 휴식 공간으로 침대를 활용하길 원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침대 기술도 다르게 진화 중이다. 대표적인 게 바로 움직이는 침대 '모션 베드'다. 모션 베드는 전동장치를 사용해 자동으로 매트 상체나 다리 부분이 아래위로 움직이도록 만든 침대다. 리모컨으로 작동시키는 게 보통이지만,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폰 앱이나 목소리로 작동하기도 한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등받이가 스르륵 올라와 앉은 자세로 책을 읽거나 TV를 볼 수 있다. 인간이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는 무중력 상태 '제로지 포지션' 자세를 취할 수도 있어 바로 '미래에 가까운 가구'인 것이다.



꿈꾸던 공간을 현실로 실현, 혁신적인 공간을 공유

소중하다'는 뜻의 '체리쉬'는 인간과 삶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한, 철학이 리빙 디자인 녹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물하는 것이다. 아무 감동이 없는 디자인은 삶의 여유와 만족감을 빼앗고, 교육적, 문화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없다. 특권층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꿈꾸던 공간을 현실로 실현해주는 것,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체리쉬'의 사명인 것이다. 체리쉬의 임직원들은 이러한 사명을 바탕으로 미래에 가장 가까운 가구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개발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

ERA코리아 이영석 회장
(7 지역 대표, 서울한강RC)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비옥한 대지의 역할

이영석 회장은 동양의 '군자'처럼 생각하고 서양의 '신사' 같이 행동하는 일종의 '통합적' 인물입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명예보다는 후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도덕적 의무를 다하려고 늘 애쓰는 사람이지요. 자신의 몸과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유일한 기업인이기도 합니다. 마땅한 곳에 아낌없이 주는(munificent: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나오는 지도자 혹은 훌륭한 인간의 덕목) 사회의 봉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항상 공부하는 창의적 CEO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끝없는 지적 갈증을 채우려고 배움의 기회를 찾는 데 지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컨대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진정한 의미의 '애국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 강성학 고려대 명예교수

회장님께서 로타리안이 되신 계기는 무엇이었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숨은 리더'를 발굴하여 차세대 리더로 키우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숨은 리더'를 발굴하는 것에 관한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 생각하고 인터뷰에 응하고자 합니다. 1999년도에 로타리를 알게 되어 입회하면서 로타리를 통해서 세계에 봉사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특히, PHS는 가입할 때부터 지금까지 초심으로 약속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것은 세계적 봉사 기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7지역 리더 역할과 10개 지역 대표들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요?

처음에는 중압감이 있었으나, 장세호 총재님이 로타리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로타리 정신을 로타리 강령과 4가지 원칙을 통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총재님의 의지를 7지역의 로타리클럽과 10개 지역의 로타리클럽이 하나의 마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리드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은 리더'로서의 봉사 활동이 궁금합니다.

저는 '숨은 리더'가 아니라 '숨고 싶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 대표로서 로타리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리드하고 있으며, 서울한강로타리클럽 소속으로서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랑의 열매, 모교(고려대학교), 여러 가지 사회 단체를 꾸준히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부의 뜻을 저도 실천하고자 사후 전 재산을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기부하고, 사후 시신을 모교인 고려대학교 병원에 기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많은 봉사 활동을 하신 부분과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엄청난 결심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한 실천의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 계기는 조부님의 영향이 가장 큼니다. 조부님께서 조국을 위해 순국하신 독립유공자이십니다. 상해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기부하셨습니다. 저는 조부님이 자랑스럽고 그 뜻을 이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도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직후, 전쟁고아들에게 어머니가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습관화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650 지구의 'New Direction' 변화를 어떻게 실천하고자 하시는지요?

로타리에는 리더의 역할과 참모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대표의 역할은 리더이자 참모라고 생각합니다. 총재님의 'New Direction'을 소속 클럽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사회를 위하여 '로타리 사회적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로타리 사회적 기업'은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생긴 것은 봉사의 새로운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

등 이 시대에 맞는 봉사를 할 수 있는 'New Direction'이라고 생각합니다.

'ERA코리아'라는 세계적인 부동산 컨설팅 회사 리더로서의 포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ERA코리아' 뿐만 아니라 로타리 클럽을 통하여 차세대 리더 키우고 싶습니다. 'ERA코리아'라는 세계적인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많은 사회적인 경험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사회와 나누고 싶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멘토링을 하고 싶은 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고, 앞둔 이 시점에서 '한국지정학연구원'을 만들어 통일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리더십센터'를 만들어 시니어와 청년이 실업이 아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주니어와 시니어가 상호 장점을 보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연구 중입니다. 즉, 통일을 위한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로타리인과 젊은이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로타리인은 로타리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초야의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로타리의 가치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파하여 이들이 많이 영입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리더인 지구 총재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재님은 기차의 기관장 역할이며, 그 뜻이 연속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랑스런 로타리안 시리즈 ①

기업가이며 사회봉사인, 한국인 최초 국제로타리회장, 이동건 前 RI회장

이동건 (주)부방 회장은 기업가로도 유명하지만 사회봉사인으로 명성이 높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는 이동건 회장은 한국인 최초로 2008-09년도 국제로타리 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로타리에 위상을 높였다.



지주사 (주)부방은 이동건 회장의 부친 이원갑 창업주가 1934년 부산에서 직조 공장인 제국제마직포공장을 설립 하면서 시작했다. 또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제조업체인 테크로스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2015년 부방그룹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며 지주사인 부방으로 리홈쿠첸의 사명을 변경하고 리빙사업부문을 분리해 생활 가전기업 쿠첸을 설립했다. 또 유통전문업체 부방유통을 설립했다. 그는 지주사인 부방의 회장을 맡았으며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쿠첸의 생활가전사업 경영은 장남인 이대희 대표가 맡고 있다.

서울고와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한 양촌 이 회장은 2016~現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회장과 2016~現

학교법인 단국대학교 이사, 2015 단국대학교 명예 철학박사, 2012 美 Samford 대학교 명예박사, 2010~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2009~現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 등 경력이 화려하다.

상훈은 석탑산업훈장 수훈,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국가 유공자 건국포장 상훈,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 국제로타리 재단공로 표창 국제로타리 회원증장 '캘거리 챌린지도전' 세계 1위 수상, 국제로타리 재단 특별공로상, 소아마비 없는 세상을 위한 봉사상(국제부문)을 받았다. 로타리 경력은 로타리재단 AKS 멤버, 국제로타리재단 이사장, 2008~09 국제로타리 회장, 국제로타리 재단 이사, 국제로타리 재무, 국제로타리 이사, 회원증장 Asia지역 코디네이터, 1999 국제협의회 Training Leader, 1998~99 RI회원증장 코디네이터(ZONE 9), RI지역재단 코디네이터(RRFC), 3650지구 총재를 지냈다.

양촌 이 회장의 최근 근황은 2년 반전부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회장 역할을 맡아 반기문 명예회장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 분야에서의 기업 전략을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과 결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로서 세계 경영관행에 10대 원칙을 일반화하는 것,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와 같은 유엔 어젠다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일을 한다. 또한, 국제 적십자사 중앙위원과 화재기념 사업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화재 이언적(1491-1553)은 성리학자로 퇴계 이황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주자 중심의 성리학이 조선에서 성행하는 데 이바지한 인물이다.

“나에게 로타리는 일상이다.”



회장님께서 로타리안이 되신 계기는 무엇이었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릴 적 부친이 부산에서 로타리클럽 활동을 하셨습니다. 3661지구의 총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남을 돕는 일을 하시는 것이 자랑스럽고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1970년에 사업상의 이유로 서울에 온 지 1년 후, 서울한강로타리클럽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과 로타리 활동을 겸하는 부분을 우려하셨으나, 하기로 했으니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격려해주셨습니다. 시작할 때는 국제로타리 회장이 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로타리안이 된 지 16년 만인 1988~89년에 로타리클럽 회장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시작한 로타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던 로타리와 로타리안이 되신 이후 몸소 체험하신 로타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실,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로타리는 명예로 하는 활동인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고민이 생겼을 때, 4WAY 테스트를 삶에 적용해보았습니다. 진실한가? 모두에게 공평한가?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스스로 되돌아보며 고민한 결과, 로타리는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조직이며 봉사 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초심으로 로타리안을 포기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여전히 행복한 일입니다.

무엇이 로타리안을 로타리안답게 만들며, 무엇이 이들의 가슴에 자부심을 심어 주까요?

‘출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로타리안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 첫째도 출석, 둘째도 출석이었습니다. 문상철, 송인상 씨는 100세가 넘어도 로타리에 출석하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로타리안으로 활동하시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사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부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방문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곳에서 빈곤 퇴치 관련한 봉사 활동을 하며 시내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움집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들어 굶고 있는 모자를 보았습니다.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로타리 회장이 되었을 때 ‘전 세계 영유아 사망률 줄이기’가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UN과 함께 3만 1천 명이었던 영유아 사망을 2만 명까지 줄였습니다. 하나의 충격이 많은 생명을 지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타리, 그리고 로타리안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원하십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젊은이들의 로타리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매력을 느끼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제로타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타리의 경우, 약속한 자기 부담금(연회비)을 정확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에서는 자기 부담금에 관하여 정책적으로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로타리의 기본 정신을 잘 리드할 수 있는 각 로타리클럽 회장의 판단력과 역량입니다. 로타리클럽이 잘 운영될 때, 로타리와 로타리안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

한국로타리 (존11, 12) 2018-19 로타리협의회 개최

7월 12일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 3650지구 장세호 총재 등 25명 참석



글. 9지역대표 남궁근
서울새한빛로타리클럽

국제로타리 2018-19 존11,12 로타리협의회가 7월 12일(목) 충남 아산경찰교육원에서 한국로타리 1천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매년 그랬듯이 한국로타리 2018-19년도 협의회가 회기 시작하는 7월초에 열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충남 아산에서 폭염 속에도 뜨거운 열기로 진행되었다.

새벽6시 양재동 수협 은행 앞에 집결.

단체버스를 타고 출발하였는데, 3650지구에서 장세호 총재님 포함 25명과 3640지구에서 김중주 총재님 포함 19명, 모두 44명이 탑승하였고, 장세호 총재님과 김중주 총재님이 버스 앞좌석에 두분이 사이좋게 나란히 앉고, 그 뒷좌석에는 박수부 차기총재님과 영부인 한동선 로타리 자원봉사위원장님 내외분이 다정하게 같이 앉고, 3650지구 김중 사무총장과 3640지구 김형성 사무총장이 무슨 말을 하더니 간

식을 나눠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마치자 버스가 로타리 협의회장에 도착하였다.

시장하던 차 소개 중간 중간 맛있는 간식 먹었고 서빙한 회원님께 감사 드린다.

에어컨 버스에서 내리자 작열하는 태양의 열기로 대화장까지 걸어가는데 땀이 등줄기를 흐른다. 뉴스에서 들던 200년 만의 살인적인 무더위란 말이 실감나는 날씨였다.

대회장으로 들어서니 사회자의 각 지구 로타리 회원을 소개할 때마다 회원 참석이 많은 지구에서는 참석자 경진대회 응원하듯이 장내가 떠나갈 듯 했다.

3650지구는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 질러 보았지만 숫자에서 역부족으로 뜨거운 열정만으로 만족했다.

사회자의 전, 현직 총재님들 소개에 이어 개회사, 격려사, 축사, 강의 및 사례발표가 있었고 강의 내용 중 공통적 핵심 내용을 요약한다.

3650지구 장세호 총재와 3640지구 김중주 총재가 충남 아산으로 가는 단체버스에서 함께 촬영



1. 로타리의 변화와 감동

로타리 창시자 폴 해리스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113년 역사속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음을 강조하였고 2018-19년도 배리래신 R회장은 “세상에 감동” 연도 테마로 회원들에게 감동을 주는것부터 시작해야한다고 했다.

2. 국제로타리와 한국로타리

현재 국제로타리 회원수는 120만명 초반에서 2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한국로타리도 2008-09년도 이동건 R회장(3650지구) 재임시절 처음으로 6만명 시대에 진입한 후 10년째 계속 6만명 초반을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로타리의 중흥을 이룩하신 이동건 전R회장님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자랑스럽게 생각된다.

3. 한국 로타리 현황·회원증강

한국로타리는 현재 6월29일 기준으로 1636개클럽 회원 64,890명으로 국제로타리 평균 1개존 36,000명에 많이 부족한 실정(19개 지구)으로 2개 존이 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한국로타리 72,000시대에 성큼 다가갈 수 있기를 강조하였다.



4. 회원증강을 위한 제언

- ① 2018-19 배리래신 R회장은 여러분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로타리인들의 정신을 각성시켜야 하며 각자의 능력이나 각자의 잠재력 그리고 우리 모두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갈망을 일깨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② 매년 입회하는 신입 회원수만큼 기존회원이 로타리를 떠난다. 회원구성 불균형, 기존회원 연령 고령화에 따른 여성회원과 젊은 회원 영입 시킬 수 있는 개선된 방안 모색과 리더육성노력
- ③ 클럽 세칙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정기모임을 다양하게 변화하여 운영, 한번은 조찬주회, 다음번은 석찬주회 (예 3650지구 장세호 총재님 시행중-8월, 9월 주회는 하얏트호텔, 10월 주회는 석찬주회로 장소도 다른 곳)
- ④ 배리 래신 R회장의 로타리 회원증강 위해서는 로타리안 자녀를 로타랙터로 추천할 것을 권유 즉, 이순동 3650지구 전 총재의 경우 Family Together운동으로 가족 신입회원 영입을 시행
- ⑤ 새로운 형태의 주회활동으로 지구별 회원증강 목표를 순증감 15%이상, 신생클럽 3개이상 창립 목표를 설정하여 회원영입 권장을 제안
- ⑥ 공공이미지 전략으로 좋은 이미지 확립이 중요하다.
한국로타리가 성립된지 100년(1927년 창립)을 앞두고 있다.
2005년(이규향 전RPIC)에 시행한 로타리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조사에서 인지도 수준은 유니세프, 대한민국 적십자사, 라이온스 보다 저조하며, 로타리가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한 가운데 “듣거나 본적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중 봉사단체라고 답변한 반응이 28%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세계기업의 평균수명은 13년이라고 하는데 30년이 지나면 창업한 기업중 약80%가 사라진다는 것이 집계된 통계수치라고 한다.
한국로타리 100년을 맞이하는 10년동안 회원증강, 재단기부가 잘 이루어지도록 각 로타리안들이 야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치 포병이 원활한 지원사격을 하듯 로타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을 동국 이순동 RPIC(공공이미지 코디네이터)는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5. 2018-19 국제로타리 아산 협의회 동행

3640지구 소개

2018아산 로타리 협의회 참석을 위해 새벽6시 버스에 탑승할 때부터 처음보는 사람이 아니라 24년전 헤어졌다 만난 형제처럼 버스좌석에 나란히 앉아 어깨동무하고 기분 좋게 이야기하며, 3650지구 장세호 총재와 3640지구 김중주 총재는 왠지 무언가를 위해 수장끼리 의기투합 하는 것으로 보여 한국로타리 중흥의 사고를 칠것 같은 느낌을 갖기에 충분조건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큰 인연으로 만났으니 앞으로의 로타리의 동반자로서 3640지구를 소개코져 한다.

- (1) 3640지구는 1994년 7월1일 365지구(현재의 3650지구)에서 24년전 분구되었다.
- (2) 현재 9지역 58개 클럽이다.
- (3) 회원수는 1,210명이다.
- (4) 봉사활동은
 - ① 지구차원에서 국내장기 지속봉사-시각장애인 나들이 봉사
 - ② 생명의 선물(시각장애인 개안수술)
 - ③ 김장봉사(로타리안 400여명 참여)
 - ④ 사랑의 연탄봉사(인터랙트와 함께)
 - ⑤ DMZ평화통일 공원 사과나무 심기-각지역 봉사개최
 - ⑥ 다문화 가정 지원외
 - ⑦ 국제봉사 장기추진 봉사 사랑의 백신(네팔 콜레라 백신접종)
 - ⑧ VTT사업
- (5) 국제봉사(프로젝트별)
 - ① 인도네시아 간척지개발사업 공동참여
 - ② 콜레라 백신 사업 추진중
- (6) 국제봉사 추진(중)계획
 - ① 글로벌 장학생 선발 중
 - ② 여성유방암 검진사업
 - ③ 베트남 팜나이성 초등학교 지원사업
 - ④ 대만 3523지구, 3640지구 휠체어 전달사업(국내실시)



끝으로 2018-19 국제로타리 ZONE 11,12 로타리 협의회 참여하신 양촌 이동건 전R회장님, 지산 문은수 R이사님, 중정 윤상구 R재단이사님, 동국 이순동 RPIC님, 그리고 3650지구 임원을 인솔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신 장세호

총재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회원님 수고 많으셨다.
또한 3650지구와 3640지구 현재 로타리안은 로타리정신으로 협력하여 인류봉사를 위해 노력하실 것을 굳게 믿는다.
감사합니다. ☀

토론과 참여로 진행된 첫 지역대표 회의

글. 1지역대표 한태숙
서울로타리클럽



왼쪽부터 이종원 지구운영고문, 윤영석 지구트레이너, 장세호 총재, 최경순(2지역대표), 강무진(6지역대표), 김중(사무총장), 김학자(10지역대표), 박현영(8지역대표), 한태숙(1지역대표), 남궁근(9지역대표), 연기영(5지역대표), 이영석 지역대표 회장(7지역대표)

지난 7월 6일 장세호 총재 및 클럽 회장 이취임식 후, 처음으로 10개 지역대표 회의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이영석 지역 대표 사무실인 ERA/Century21에서 진행되었다. 장세호 총재, 윤영석 지구트레이너(전 로타리재단 이사), 이종원 재단기부촉진위원장(전 총재), 이영석 지역대표 회장(7지역대표), 한태숙(1지역대표), 최경순(2지역대표), 연기영(5지역대표), 강무진(6지역대표), 박현영(8지역대표), 남궁근(9지역대표), 김학자(10지역대표), 김중(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열린 토론을 하였다.

제일 먼저, 지구트레이너인 윤영석 전 총재는 재단 기부 사항에 대해서 김중 사무총장이 자세히 업데이트한 PHS와 PHF 자료에 감사하며 재단 기부에 대한 현황과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이종원 전총재가 EREY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까지 설명하고 토론을 거쳐,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재단 무기부클럽 해소를 위한 클럽 회장의 연차기금 100\$ 기부, 지구 임원 PHF 1구좌(1,000\$) 기부, 100% EREY를 달성하기 위하여 클럽 별 특성에 맞게 독려하는 방법 등이 의논되었다. 재단기부 100만\$ 달성방안을 위한 지구 내 클럽의 100% EREY, 지구 임원과 지역대표의 PHF 기부 독려 (9월 재단세미나 월례회의에서 약속), PHF 피지명 제도를 활용하여 피지명인에 대한 기부 독려(기부 릴레이), 신규 기부

자 및 고액기부자에 대한 예우, 신규 주요 후원자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PHS 란 평생 US\$1,000을 매년 기부하는 것인데, 이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재단기부 상황을 관리하는 담당자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올해 5지역 클럽들은 100% EREY를 약속하기도 하였다. 각 지역대표들도 이런 사항을 각 지역 회장단과의 회의를 통해 회장단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는 것의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장세호 총재는 지구의 가장 기본인 재단 기부와 회원 증강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지구대회는 올해 12월 7일, 하얏트 호텔에서 열릴 예정으로 가능한 이때까지 가시적인 목표 달성을 이루어 발표하는 것으로 하였다. 20여명의 청년 미래지도자를 선임하여 분야별 집중 훈련을 시키고, 소규모 클럽을 위한 합동봉사 기회 및 합동 주회 지원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현재는 가치전쟁의 시대로 위기의식을 갖고 비전을 만들어 변화의 팀을 구성하고 성공을 통한 변화를 지속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시대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차세대 리더인 로타렉트를 위성클럽 회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다음 모임은 8월3일에 다시 모여 회원증강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국제로타리3650지구

2018-19 클럽 사무장 협의회 개최



2018-19 클럽 사무장 협의회가 7월 20일(금) 오전 11시 공간스페이스 R.go 에서 장세호 총재와 이영석 7지역대표, 김중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 클럽 사무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장세호 총재께서 2018-19년도 지구 비전과 목표들을 소개하고 나아가 지구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사무장들에게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협의회 이후 가진 오찬에서 총재와의 대화를 통해 지구와 클럽을 더욱 활성화시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모색하고 의논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이영석 7지역대표(서울한강RC)가 운영하는 코워킹 스페이스 “알고 (R.go)”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 장소를 무상 협찬 해주었다. 🌟

코워킹 스페이스 “알고 (R.go)” - (장소 문의 : 02-2222-601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동성빌딩 11층(도심공항터미널 맞은편, 1층 하나은행)
(2호선 삼성역 5번출구 도보로 5~10분)

서울삼청 청계 로타리 위성클럽 창립

창립회원 51명, 6월 30일 창립식 개최

직장인 기반 로타랙트클럽인 서울로타랙트클럽 회원들이 위성클럽으로 전환.



서울삼청 청계 로타리 위성클럽의 창립총회가 2017-18년도 회기의 마지막 날인 6월 30일 서울클럽 한라산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서울삼청 청계 로타리 위성클럽 판태호 위원장과 강지영 차기위원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창립 회원들이 참석했고, 이순동 총재, 장세호 차기총재, 박수부 차차기총재 등 총재단과 스폰서클럽인 서울삼청RC 원장현 회장을 비롯한 전임회장들과 정취재 회원증강위원장, 엄경섭 질병예방치료위원장, 박윤희 사무부총장, 최경순 차기 2 지역대표 등 지구임원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여 신생 클럽 창립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창립식은 판태호 위원장의 내빈소개 및 인사, 배리 래신 차기회장의 축하메시지 상영, 입회선서와 배지 수여, 클럽기 증정, 초대임원진 소개 등으로 진행됐고, 강지영 차기위원장 취임사와 이순동 총재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대금산조의 명인인 서울삼청RC 원장현 회장이 직접 대금 연주를 했고, 가수 베게씨와 추계예술대 재즈팀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이순동 총재는 축사를 통해 “이번 회기들어 배우자들로 구성된 클럽, 로타리 활동을 해왔던 원로들로 구성된 클럽, 학교 선배 동문들로 구성된 클럽에 이어 로타랙트 출신 젊은 직장인들로 구성된 서울삼청 청계 위성클럽이 탄생하며, 진정한 패밀리루터더 회원 운동이 완성됐다”고 강조하며, “로타리의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봉사의 대열에 동참해주신 서울삼청 청계 로타리 위성클럽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각오와 적극적인 자세로 빠르게 발전하여 우리 3650 지구를 대표하는 청년 클럽으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삼청 청계 로타리 위성클럽은 2015-16 로타랙트 지구대표를 역임한 판태호 위원장이 주도하여 국제 교류를 통해 해외 로타랙트클럽의 시스템을 경험하고 대학을 졸업해 서울 소재 회사를 다니거나 대학원에 진학한 국내외 로타랙트클럽 출신 남녀 회원 51명으로 구성됐다.

지나해 9월 16일 서울삼청로타리클럽의 스폰서로 서울 로타랙트클럽을 창립한 데 이어, 일년여의 활발한 주회 및 봉사활동에 이어 2017-18년도 회기내에 위성클럽 전환을 모색하여 오다가 비로서 창립식을 갖게 됐다.

서울삼청로타리클럽(회장 최인훈/차기회장 원장현)이 위성클럽 창립을 스폰서했으며, 이순동 총재가 총재특별대표로서의 역할을 직접 맡아 클럽 창립을 적극 지원했다.

서울삼청 청계 로타리 위성클럽은 앞으로 서울삼청RC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로타랙트를 비롯한 30세 미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회원배가운동을 펼칠 계획이며, 자체적인 국내외 봉사프로젝트 개발과 한국 대만 일본 로타랙트 친선회의 주관 등 신세대 국제교류 사업에 앞장서는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



클럽 회장 이취임식

우리 지구 각 클럽들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2018-19년도 클럽 활동에 돌입했다. 장세호 총재는 20여개 클럽의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세상에 감동'이라는 2018-19년도 RI회장 표어와 금회기 지구 슬로건인 '초심으로 기적'을 지구운영 방침을 소개하고 이, 취임하는 클럽 회장들과 회원들을 격려했다. <편집자주>



서울에지RC (회장 설영희) 6월 20일 압구정동 '만' 레스토랑



한성RC (회장 김무일) 6월 21일 프레지던트호텔 19층



한양RC (회장 윤구홍) 6월 25일 더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서울무악RC (회장 김종문) 6월 26일 Once In A Blue Moon



서울관훈RC (회장 정희영) 6월 26일 그랜드 앰배서더호텔 19층 오키드룸



새강북RC (회장 안병석) 6월 26일 창동 하누소 본점



서울중앙RC (회장 조상원) 6월 26일 말레니움 힐튼호텔 토파즈룸



서울삼청RC (회장 원정현) 6월 27일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드홀



서울회현RC (회장 문성우) 6월 28일 더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서울화산RC (회장 양경렬) 6월 29일 포스코센터 서관 휘닉스 종식당



서울북부RC (회장 이영길) 6월 29일 도봉산 그린컨벤션



서울마포RC (회장 이동주) 7월 2일 마포 거구장



서울예장RC (회장 최신일) 7월 3일 호텔프리마



서울남술RC (회장 김서영) 7월 3일 호텔프리마



새서울RC (회장 이현성) 7월 4일 퍼시픽호텔



서울남대문RC (회장 이명선) 7월 4일 드래곤힐호텔(웅산 미8군내)



서울문화RC (회장 박찬희) 7월 5일 퍼시픽호텔



서울장충RC (회장 배성례) 7월 5일 쉐라톤서울플라스크강남



서울아미RC (회장 이정희) 7월 6일 여의도 글래드호텔



새한양RC (회장 이세진) 7월 9일 서울클럽 지리산룸



서울신라RC (회장 장희정) 7월 11일 호텔프리마



서울리더스RC (회장 강석희) 7월 12일 압구정동 한일관



서울C&CRC (회장 김현숙) 7월 13일 퍼시픽호텔



서울동남RC (회장 문잔정) 7월 13일 리베라호텔



서울새한빛RC (회장 하현성) 7월 25일 뉴제호텔



서울예장로타리클럽

자매클럽인 일본 요나고 히가시 로타리클럽 창립 50주년 행사에 참석



서울예장로타리클럽 (회장 최신일/직전회장 황순신)은 지난 5월 18일(금)부터 20(일)까지 이종덕 창립회장님과 13명의 회원들과 일본 요나고를 방문하였다.

첫날은 요나고 시청을 방문하여 시장과 면담을 하였고 문화예술인이 주축이 된 서울예장로타리클럽 멤버들을 소개하고 기념품도 전달하였다.

그 다음날 지역 신문에 서울예장로타리클럽의 요나고 시장 면담 장면이 실렸고 그로 인해 로타리클럽의 홍보에 큰 도움이 되었다.

2009년 자매클럽으로 협정을 맺은 후 요나고 히가시 로타리 클럽과 서울예장로타리클럽은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양 클럽간의 우의를 다지고 있으며, 특히 이번 요나고 히가시 로타리클럽의 창립50주년 기념식에 많은 서울예장로타리클럽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축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다.

2019년 3월에는 요나고 히가시 로타리 클럽 멤버들이 한국을 방문 할 예정이다. 🌻

서울마포로타리클럽

마포구 관내 경로당에 쌀 전달 및 저소득층 어르신 480명에게 삼계탕 대접

서울마포로타리클럽(회장 이동주)은 2018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관내 경로당 50곳을 선정 하여 쌀 20kg 1포씩을 각각 전달하였다

또한 마포구 저소득층 공공 근로하시는 어르신 480명 을 여섯 개 동별로 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양원 지역봉사회 회장이며 서울마포RC 직전회장인 이선재 전회장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



새한양-누리 로타리 위성클럽

베들레헴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

새한양-누리 로타리 위성클럽은 지난 7월 7일(토) 베들레헴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 함께 가졌다.

새한양-누리 위성클럽에서 총4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7살 어린이 2명에게 영어과외 (재능기부), 그리고 어린이집 청소지원 (마당쓸기/ 살구따기)등을 진행하였다.

베들레헴 어린이집에는 새한양-누리 위성클럽에서 지난 1년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 드리고 있다.

- 물품지원 : 어린이들이 사용할만한 생필품/ 문구/ 장남감외에도 다문화가족여성들도 사용할만한 물품지원
- 봉사지원 : 1달에 한번 참여가능하신 분들에 한해 봉사지원;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기, 책읽어주기, 영어과외; 어린이집 청소지원, 다문화가족여성들에게는 영어-한글교재 교육제공 등

베들레헴 어린이집은 다문화가족여성,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24시간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며 다문화가족여성들에게도 한국어 교육과 부모교육, 부부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로, 어린이집 아이들은 0~7세 정도의 영아부터 유아까지 한 스물 몇명 정도되며, 아이들은 놀랄만큼 예쁘고 귀여우며, 매우 활동적이다. 지난 2015년 새한양로타리클럽의 후원으로 창립한 새한양-누리 위성클럽의 지속적인 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바란다. 🌻



전순표 전총재(세스코 회장, 서울남대문RC), 미주동포후원재단 주최 '제1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수상



전순표 전총재(세스코 회장, 서울남대문RC)가 지난 8월 8일 미주동포후원재단(이사장 이민휘)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는 '제1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훌륭한 한국인에게 수여하는 상훈 중 정부나 민간기업, 대학 등이 아닌 독립적인 비영리단체가 주는 상으로는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

전순표 세스코 회장은 한국 거주 기업가지만 인류에 유해한 쥐나 바퀴벌레를 박멸하는 특수한 분야를 개척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고 이후 바이러스 박테리아, 콘트롤 솔루션, 해충 방제솔루션 등 위생 환경에 관한 최첨단 기술 혁명으로 해충방제의 선두 주자가 됐다. 또한 금강장학회, 동국대 도서관, 동국장학회 등을 통해서 2세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2006-07년도 국제로타리3650지구 총재를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한국 기획재정부가 수여하는 금탑산업훈장과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의 수상자이기도 하다.

미주동포후원재단은 지난 2005년 당시 한인단체장들의 연석 모임에서 의견이 모아져 한인 사회의 모범적인 롤모델을 선정해 시상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



하만택 지구송리더(서울사직RC), 광복 73주년 기념 다큐 갈라콘서트 개최



하만택 지구 송리더(서울사직RC)이 총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코리아 아트스 그룹이 주관하는 광복 73주년 기념 다큐 갈라콘서트 '위대한 대한민국 울림'이 8월 23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우리 사회에서 위험과 희생을 감내하며 묵묵히 제 소임을 다하는 이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았다. 클래식과 국악이 하나 되고, 영상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무대에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도 힘을 모았다.

총 예술감독을 맡은 하만택 코리아아트스 그룹 대표는 "3년 전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긴 첫 번째 '울림'에 이어 이번 공연은 제복을 입고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은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



안병용 의정부 시장 (서울회현RC) 당선, 3선 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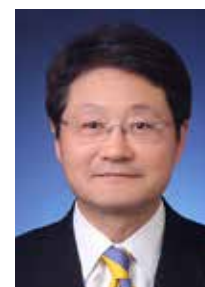
안병용(서울회현RC) 회원이 지난 6월 13일에 실시된 제7회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의정부 시장으로 3선에 성공했다. 안병용 시장은 신흥대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민선2기 경기도지사 인수위원장과 민선 5, 6, 7기 의정부시장을 3선 연임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1월 서울회현로타리클럽에 입회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박윤희 사무부총장(서울신라RC), 선화예술중학교 총동문회장 취임



박윤희 지구 사무부총장(서울신라RC)이 지난 7월 2일(월) 선화예술중학교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했다. 앞으로 3년간 총동문회장으로서 개교 45주년 행사 및 선화 재창조 사업을 위한 재건축과 모교 발전기금 마련 등 임무를 위해 봉사할 계획이다. 🌻

김영찬 회원(서울무악RC), 제1대 인천보훈병원 원장 취임



김영찬 전 인천적십자병원장(서울무악RC)이 지난 8월 16일 인천보훈병원 제1대 병원장으로 취임하였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인천보훈병원은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 등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천보훈병원이 오는 8월 31일 개원하고 진료를 시작한다. 🌻



국제로타리3650지구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 안내

<https://www.facebook.com/rotary3650>



국제로타리3650지구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가 지난 8월부터 활발히 운영중입니다. 페이스북을 활용하시는 모든 로타리안과 가족 여러분들께 적극 소개 바랍니다. 들어가셔서 '좋아요'와 '팔로우'를 많이 눌러주세요. 전 세계 모든 로타리안들과 로타리 패밀리들이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클럽에서도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R3650지구 사무국 (rotary3650@clau.net)

Together, To get worth!

2018-19년도 로타랙트 지구연수회 개최

3650지구 15개 로타랙트클럽 160명 참석, 용인 양지파인리조트



2018-19년도 로타랙트 지구연수회가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 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용인의 양지파인리조트에서 정창화 로타랙트 지구대표(중앙대)를 비롯한 3650지구 15개 로타랙트클럽 1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장세호 총재와 육심강 로타랙트 위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특별강연과 축사를 하는 등 로타랙트 활동을 격려하고 자리를 빛냈다.



로타랙트 지구연수회는 신입 로타랙터들이 참가하는 첫 연합 연수회로,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 로타랙터들에게 로타랙트 활동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클럽 간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서, 특히 이번 연수회에서는 행사 개최 전부터 로타랙터들이 각 조를 이루어 봉사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실천하는 조별 봉사활동 시간이 있었다.

헌혈봉사, 물품기증봉사, 소외계층을 위한 음식만들기 등 직접 계획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자칫 단합만 있고 봉사의 의미를 놓칠 수 있었던 2박 3일간의 연수회를 로타리 정신에 맞는 뜻깊은 활동의 시간으로 만들었다.

그 외에도 상반기 활동 보고 및 중간 평가의 시간, 미니올림픽, 로타랙트 골든벨, 포크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로타랙터 간의 유대감과 자부심을 키울 수 있었던 시간이 됐다.

특히 이번 연수회에는 지구에서 350만원을 후원했고, 서창우 지구연수위원장(서울남산RC)이 운영하는 ㈜한국파파존스 피자에서 피자와 콜라 200인분을 지원한 것을 비롯, 무학소주와 국순당에서 물품을 후원하는 등 이번 로타랙트 지구연수회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로타랙트 18-19년도 지구연수회 소감문

Together, To get worth!

3650 로타랙트의 '지금' 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대한 시작



글. 중앙대 로타랙트클럽 회장 오영택

2018-19년도 중앙대 로타랙트클럽의 회장으로서 연합 봉사를 비롯한 3650지구의 활동과 3650지구 클럽별 행사에 참석하며 바쁜 날을 보내고 맞이한 여름방학. 어느 여름방학보다 더 반갑게 느껴졌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름방학을 더욱 기다렸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18-19년도 지구연수회입니다. 로타랙트 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활동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는 설렘 때문이었을까, 올 여름방학이 많이 기대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후회 없고 그 기다림의 설렘조차 꼭 가져가고 싶을 만큼이나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니다.

이번 18-19년도 지구연수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18-19년도 지구임원들이 가장 설레고 기대되며 그만큼 걱정도 했겠지만 저 또한 많이 기대되고 걱정된 지구연수회였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로타랙트 활동을 시작하고 올 해 한 클럽의 회장으로서 로타랙트 활동을 이어나가고는 있지만, 작년 연수회를 참석하지 못한 채로 클럽의 회장으로 또 지구연수회 조장으로 자리를 한다는 게 꽤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걱정과 부담은 '내가 걱정을 했던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좋은 기획과 준비는 물론, 정말 좋아하는 중앙로타랙트 클럽원들 그리고 3650지구 인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기고 한 뜻으로 도와가며 저에게 정말 좋은 추억을 선사해주었습니다.

지구연수회, 사뭇 진지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첫 인상과는 다르게 한층 밝고 에너지 넘치는 활동에 회장으로서, 지구연수회 참가원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로타랙터로서 많이 놀랐습니다. 저와 같이 "지금"을 공유하고 "앞으로"를 나아가 지구임원들의 첫 시작을 알리는 가장 큰 행사이었기에 그들에게 더욱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18-19년도 지구연수회를 준비한 18-19년도 지구임원들이 성공적으로 그 시작을 알린 것 같아서 3650지구 가족으로서 뿌듯하고 기쁩니다.

총 156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참가한 연합활동이었던 18-19년도 지구연수회. 2박3일간의 일정동안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진귀한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조장으로서 회장으로서 두 역할을 한 번에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지구연수회를 통해 회장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650지구 인원들 모두가 하나 되어 즐겁게 다녀왔던 지구연수회 덕분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올해 여름방학을 더욱 더 잊지 못할 여름방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넘치고 활기찬 지구연수회를 다녀와서 더욱 힘내서 남은 임기 달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며 한 명의 로타랙터로서 로타랙트라는 단체에 속한 것을 후회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



로타랙트 지구 연합, 지구임원 이취임식 개최

2018-19년도 정창화 지구대표 취임(중앙대 로타랙트클럽)



3650지구 로타랙트 지구연합 이취임식이 지난 6월 2일(토) 중앙대학교에서 장세호 총재와 이종원 전총재, 김민태 前로타랙트위원장, 박찬희 서울문화RC 회장 등 지구임원과 강민성, 이승민 전 로타랙트 지구대표와 로타랙트 지구임원, 16개 로타랙트 클럽의 회장과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김재정 2017-18년도 지구대표의 개회선언, 재무 결산보고, 2017-18년도 지구임원들의 활동영상 상영, 2018-19년도 정창화 로타랙트 지구대표 취임사와 신임 2018-19 로타랙트 임원 및 지구 일정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장세호 총재와 이종원 전총재, 전임 로타랙트 지구대표들의 축사의 시간과 지구임원들의 이임사, 기념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창화 신임 로타랙트 지구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2018-19년도 로타랙트 지구슬로건을 'Together, To get Worth'로 발표하고, 3650지구 모든 로타랙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

2018-19년도 로타랙트 지구임원 현황

직책	이름	소속	E-mail
지구대표	정창화	중앙대RAC	ckdghk1928@naver.com
지구총무	유승현	숙명RAC	kate2664@naver.com
지구재무	임지혜	이화RAC	limjihye98@naver.com
지구홍보위원	박새미	중앙RAC	towk123@gmail.com
지구홍보위원	이강인	송실RAC	skysled@naver.com
지구홍보위원	김수완	무악RAC	swan3837@naver.com
지구기획위원	양애진	숙명RAC	dowls0982@gmail.com
지구기획위원	이예린	서울남산RAC	leeyern@naver.com
지구사회봉사위원	김민제	덕성RAC	alswp73@naver.com
지구국제교류위원	손수연	이화RAC	thstndus007@naver.com
지구연락위원	서동건	송실RAC	sdk3381@naver.com
지구연락위원	김다인	서울남산RAC	sin680304@naver.com





“로타리의 숭고한 봉사정신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캄보디아 뻬인넬 초등학교 개보수 국제봉사!

오랜 외세 침략을 받고 아픈 역사적사건을 겪으면서도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는 캄보디아 사람들.... 캄보디아는 이제 세계시장 개방과 국제화시대를 맞아 세계는 미개척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도 프놈펜 지역에서 2시간 정도를 달려 찾은 곳은 캄 룡수프 지역, 가난한 모습의 생활과 시골풍경의 농촌 시골 뻬인넬초등학교다.

일제 식민지 시절, 지어진 낡은 학교, 멀리 4Km 떨어진 곳에서부터 걸어서 등교하는 까만 피부에 또렷한 눈망울을 가진 작은 체구의 어린 학생들....

하늘이 훤히 보이는 양철지붕, 뜨거운 불볕에 달구어진 열기 가득한 선생님의 기숙사. 선생님들이 열악한 환경을 못견뎌 도시로 진출하고 나면 학교는 정상수업이 어려웠다.

이러한 사실을 캄보디아국제사랑재단 김선문 목회자로부터 서울중앙로타리클럽 조영상 한감국제봉사위원장에게 전해와 당시 박영구 총재와 사무총장인 박수부, 조영상 위원장이 현지를 방문, 딱한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추인 문 교장 선생님과 협의하여 선생님들이 거처하는 기숙사

글. 차기 총재 박수부
서울중앙로타리클럽



를 개.보수 신축하기로 하고 당해 년도 WCS사업으로 서울중앙클럽과 자매클럽인 일본 스미요시클럽, LG디스플레이 기업지원과 지구보조금으로 시작, 다음 해인

2011년 5월 26일 완공을 시작으로

2012-13, 두 번째 화장실 개보수, 남녀화장실 신축

2013-15, 지하수펌프와 저수조 설치 완공

2015-16, 다목적도서실(로타리 라이브러리) 신축건립

2016-17, 노후된 학교건물, 교사 페인팅 보수,

전기조명 교체(금호전기협찬)

2017-18, 도서실 내 책상 대형 4개,

의자 32개 제작 설치 완료

2019-20, 도서실 도서기증 운동전개와 체력단련 시설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관심을 가져 6년여 년차적으로 성공적으로 국제봉사를 실시한 결과에 감사하며, 노력해 주신 분들을 거명하면 박영구 前 총재님, 고성대 前 총재님, 이종원 前 총재님, 이영호 前 총재님, 박호군 前 총재님, 이순동 前 총재님을 비롯하여 주관클럽인 서울중앙로타리클럽과 6지역(지역대표 박수부) 12개 클럽회장, 조영상 지구한감국제봉사위원장, 서울중앙클럽 이기봉 회장, 이영호 前 회장, 김낙경 前 회장, 장규호, 조재용(도서실설계 재능기부)클럽 임원과 한성익 기금참여, LG디스플레이 기업, 김선문 현지 목회자 등,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부, 협조로 이루어졌음을 밝혀두고 싶다. ☺

추억의 그림

편집자 註 : 印度의 독립운동가이며 정신적지도자 '마하트마 간디' 평소 "세월이나 人生은 시위를 떠난, 그런 뜻에서 값진 것인지 함께 동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은 지난週 한성로타리클럽 週報에 실린 中齋 장충식 前총재님의 글입니다. 우리 클럽 회원들에게만 읽히기엔 아깝다 생각되어 보내드립니다. 함께 읽으며 한사람의 超我的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가를 생각해 보는 본보기라 생각해보았습니다.

3650지구 한성로타리클럽 竹林齋 金 武 一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로비에는 캐나다의 여류화가 Brooks Babara가 그린 두 개의 그림이 걸려 있다. 하나는 캐나다 록키 산맥 중 Jesper에 있는 한 산봉우리의 설경을 그린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캐나다의 자작나무 숲을 그린 그림이다. 이 두 그림 중 하나인 록키산의 설경 그림은 30년 전에 내가 직접 캐나다 Jesper시에 있는 쇼핑물 화랑에서 직접 구입한 그림이고, 다른 자작나무 숲을 그린 그림은 작가 바바라가 나를 위해서 그려 준 그림이다. 1982년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 夏季유니버시아드대회에 나는 한국선수단 단장으로 참가하였다. 대회가 끝난 후 한국선수단 통역 책임자인 현지 교포 한영자씨가 운영하는 쇼핑물을 찾았다.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감사하다는 인사 겸 선물을 사기 위해서 쇼핑물에 들렀다가 벽에 걸린 록키산 설경 그림을 보고 탐이 나서 판매하는 그림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해서 값을 물은 즉 미화 2,000 달러 라고 해서 내 수중에는 몇 백 불밖에 없어서 현금을 주고 살 수 없었다. 그래서 계약금만 주고 잔금은 귀국해서 송금을 할 것이니 그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고 부탁을 했더니 한영자씨는 곧 한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자기가 지참할 것이니 한국에 가면 그때 잔금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록키산의 설경 그림을 구입할 수 있었다. 학교 어딘가에 걸어놔더니 보는 사람마다 그림이 좋다고 해서 화가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

한영자씨를 통해서 작가의 신상 소식이 전해왔다. 내가 구입한 그림도 1년 내내 쇼핑몰에 걸어놔지만 팔리지 않았던 그림이라 화가는 무척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방값도 여러 달 밀려서 두 딸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해왔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현지인이나 캐나다를 찾는 관광객이 구입하지 않는다는데 의문이 생겼다. 화가 바바라씨는 국적이 미국인데 가족들과 캐나다에 관광차 여행을 왔다가 록키산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반에서 남편에게 캐나다에 이주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거절당하고 결국 바바라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두 딸만 데리고 Jesper 산골 도시에 와서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고 사는 삶에 행복과 보람을 느끼고 살지만 그림이 팔리지 않아서 두 딸과 셋방에서 쫓겨날 형편이라고 소식이 전해왔다. 캐나다의 산과 숲과 호수가 아름다워서 남편한테 이혼까지 당하면서 캐나다 산골에 파묻혀 살면서 하루 세끼를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그림이 팔리지 않아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한국의 그림 애호가들에게 소개하



中齋 장 충 식 전총재
한성로타리클럽



고 싶었다. 그리하여 나는 MBC 방송국의 간부들과 의논하여 단국대학교와 MBC가 공동으로 바바라 화가를 초청하여 서울신문사 화랑에서 캐나다 여류 화가 개인초대전을 개최하였다. 캐나다에서 팔리지 않은 바바라 여사의 그림이 방송사의 텔레비전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일간 신문사의 사진을 통해서 바바라 화가의 그림이 소개되고 그림 애호가들에게 알리게 되었다.

바바라 여사가 김포 공항에 도착하는 날 나는 그를 영접하러 공항에 나가 처음 만났다. 많은 사진 기자들이 나와서 그녀를 카메라에 담느라 번잡하였다. 공항에서 처음 만났을 적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보다 훨씬 키가 크고 우람한 체격을 가진 여성이었고 그분이 입고 온 옷이 너무 허름해서 혹 그림 애호가들한테 무시당할까 염려가 되어 어느 양장점 주인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하루 밤 사이에 예쁜 여성 정장을 만들어 선물하였다. 체격은 남성처럼 우람하게 보였으나 서양 미녀의 아름다운 자태는 많은 팬의 시선을 끌었다. 전시회 첫날에는 서울신문사 화랑 전시장에 발을 드려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람객이 참석하였다. 전시회가 열리는 첫날 주한 캐나다 대사 내외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 대사들이 관람차 참석했고 우리나라 정부 요인과 외부부의 고위 간부, 문화관광부의 고위 인사를 비롯하여 문화 예술계 인사들, 특히 화단 유명한 화가들과 그의 문하생들도 많이 참석하여 전시회 첫날부터 성황을 이루었다. 바바라 여사가 캐

나다에서 가지고 온 그림은 15일간 전시하는 기간에 전부 매진되었다. 주한 캐나다 대사는 한국과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 캐나다 예술가로서는 바바라 여사가 한국에서 처음 갖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화행사였으며 캐나다의 명예를 빛낸 분이라고 전시회 첫날 모임에서 바바라 여사를 위해 극찬의 축사를 하였다. 당시 전시회를 통해 매진된 수익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미화 10만달러가 넘었다. 그리고 그림 판매 수입 전액을 바바라 화가에게 증여하였다. 캐나다 대사는 바바라 화가에게 감사장을 수여함과 동시에 캐나다 정부에 바바라 화가의 공적을 보고하여 캐나다 정부는 바바라 화가에게 캐나다의 명예를 빛낸 화가로서 Alberta 주를 대표하는 화가로 지명하고 캐나다의 알버타주와 우리나라의 강원도가 정식으로 자매 결연을 맺었다. 그리고 다음 해 강원도가 정식으로 바바라 화가를 초청하여 전시회를 가지기로 약정하고 공표하였다.

그런 일이 있는 후 나는 캐나다의 알버타 주 출신의 캐나다 원주민 추장의 후손으로 캐나다 정부의 국회의원의 초청을 받아 캐나다를 방문하게 되었다. 내가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 도착하는 날 바바라 화가는 Jesper에서 밴쿠버까지 무려 10여 시간이 걸리는 장거리를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한 자동차를 몰고 왔다. 바바라 화가는 기쁨과 행복한 웃음과 감격의 눈물로 나를 맞이하여 주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림을 팔지 못해 빚에



계곡의 변신(단국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외래 벽면)



설곡(단국대학교병원 수술실 옆 벽면)

몰려 셋방에서 쫓겨날 불행한 처지에서 한국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일로 10만 불의 수입이 생겼고 Jesper에 그의 화실을 마련하고 알버타 주를 대표하는 명예로운 화가로 지명되면서 그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나를 마중 나오기 위해서 10여 시간을 운전을 하고 왔으며 다음날 그는 나를 태워 10여시간을 운전하여 Jesper로 달려갔다. 바바라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은인이고 여러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였다. 이런 일로 나는 캐나다 원주민출신 추장인 캐나다 국회의원을 사귀게 되었고 그분에게 우리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바바라 여사는 새로 마련한 화실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보이면서 우리 대학 개교 40주년을 기념해서 40장의 그림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8장의 그림이 우송되어 왔다. 그분이 계속 건강을 유지하였으면 그의 작품 40개가 우리대학 개교 40주년 기념 행사 전에 기부되었을 것이다. 그런 일로 나는 캐나다 원주민 출신 국회의원이 경영하는 생수회사에 바바라 화가를 소개하여 생수회사의 생산 판매되는 물병 전체에 바바라 화가의 그림을 그리도록 교섭을 해주어서 캐나다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까지 바바라 여사의 그림이 실린 생수병이 보급되었다. 미국에 수출되는 물병만도 100 만병이 넘었다. 엄청난 수입이 바바라 여사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한 가난한 외국의 화가를 위해 전시회를 열어준 인연으로 하루아침에 유명한 화가로 변신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지 않았다.

어느 날 Jesper에 거주하는 한 교민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바바라 여사가 중병에 시달려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바바라의 소원이 죽기 전에 꼭 한번만 나를 보고 싶다고 와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바바라 화가를 자주 만난 적도 없었다. 그리고 그분과 회식을 단독으로 한 적도 없었다. 나는 그를 위해서 봉사해준 인연으로 그는 유명한 화가로서의 명예를 얻었다. 그는 나에게 자기 운명을 바꾸어 놓은 커다란 은인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하였다. 나는 한 교수를 대동하고 캐나다로 달려갔다. Jesper 시립병원에 입원한 바바라 화가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산악지대의 작은 도시에는 그의 병을 치료할만한 전문의가 없어서 Edmonton에 있는 전문의를 특별히 초청하여 연명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의 병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내 손을 꼭 잡고 오래 동안 보고 싶었다고 와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였다. 그리고는 곧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옆에 있던 주치의와 간호사는 그녀의 운명을 알려주었다.

30년 전의 일이었다. 바바라 여사의 그림은 우리 천안 병원 로비에 걸려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바바라 화가의 사연을 아는 사람이 없다.

나 밖에는.. 그래서 추억을 더듬어 글을 남긴다. ☺



국제로타리3650지구, (사)K문화독립군과 MOU체결 올바른 가치의 회복과 미래지향적 가치교육을 위한 문화사업에 적극 협력



글. 지구 문화봉사위원장 주세페 김동규
서울강북로타리클럽

국제로타리 3650지구(총재 장세호)와 사단법인 K문화독립군(대표 김동규)이 지난 7월 26일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MOU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K문화독립군’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문적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주독립 정신과 나라사랑의 혼을 일깨우고 나아가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보훈처 산하의 사단법인이다.

그 첫 행보로 지난 7월 5일 여의도KBS홀에서 관객 3200명을 대상으로 잊혀졌던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기업가 정신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다시 알리는 창작뮤지컬 <페치카>를 성공적으로 공연하였다. 이번 공연에는 서울과 경기권에서 청소년 약 2천명이 초대되어 다양한 사회저명인사들과 함께 안중근 하얼빈 의거의 실질적 배후이며 후원자였던 한국의 카네기 최재형을 이야기를 뮤지컬로 관람하였다.



이번 공연을 위하여 3650지구에서는 랑코리아 위성클럽의 전문연주자들과 물푸레리틀렉트클럽 합창단(단장:경희수)이 공연에 직접 출연하여 재능봉사를 하였고, 장세호 총재를 비롯하여 로타랙트 40여명과 각 클럽에서 추천한 50여명의 청소년들이 공연에 초대되었으며 특별히 (주)한국파파존스(대표이사 서창우 지구 연수위원장)가 100여명의 공연 출연자 전원에게 피자과 치킨을 제공하여 훈훈함이 더해졌습니다. 'K문화독립군'이 보훈처로부터 인가를 받기까지는 서울강북로타리클럽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연팀으로 구성된 랑코리아위성클럽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K문화독립군은 국제로타리3650지구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가치의 회복과 미래지향적 가치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함께하게 됩니다. 🍷

1. 한국 고유의 정신세계와 정서를 스스로 찾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가치를 세우는데 함께한다.
2. 세계적인문화의 이해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실천적 리더십을 기르는 가치교육에 함께한다.
3. 올바른 가치관, 정확한 역사관, 투철한 국가관, 폭넓은 세계관을 계몽하는 문화예술 콘텐츠의 보급 확산에 협력한다.

3650지구 로타랙트 연합의 뮤지컬 <페치카> 관람 소감

김동규, 김구미교(서울강북RC) 듀오아임의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을 그린 뮤지컬 <페치카> 공연에 초청, 7월 5일 KBS홀



뮤지컬을 보러간 경험이 없어서 페치카 뮤지컬에 초대해주신다는 공지를 받자마자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월에 신세대워크샵에서 보여주셨던 무대를 보며 감탄을 했었는데 페치카 뮤지컬 역시 훌륭한 공연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님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이번 공연을 보며 훌륭한 독립운동가 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마음에 새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세페김 선생님과 김구미교 선생님이 독립운동가분들을 알리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땀흘리시며 준비하셨는지 짐작할 수 없는 공연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꼭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서울남산 로타랙트 회장 박윤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에 정말 공감을 하면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운동가에 대해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사실에 부끄러웠고, 또 그분들을 위해 공연을 기획하고 시행하시는 주세페 김, 김구미교 부부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일을 하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우리 지구 로타리안이라는 사실도 너무나 자랑스롭습니다. 저도 이번 뮤지컬을 계기로 역사를 더 열심히 공부해 부끄럽지 않은 로타랙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글. 서울남산 로타랙트 부회장 김아현

콘서트를 관람하기 전까지 사실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안중근 의사만 대표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콘서트도 안중근의사의 시대라고만 배경설명을 들었어서 안중근 의사에 관한 내용인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뮤지컬 관람을 통해 페치카라는 안중근의사에 비해 덜 알려지긴 했지만 누구보다도 뒤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최재형 선생 같은 분을 알게 되어서 의미가 컸던 것 같다. 또한 뮤지컬이라는 형식을 통해 그러한 사실과 그분이 하셨던 독립운동, 교육지원활동 등을 좀 더 재밌게 알 수 있었다. 역사 뒤에서 열심히 노력하셨던 페치카라는, 또 그분 이외의 다른분들까지 이러한 뮤지컬을 통해 잊지 않고 기릴 수 있고 그분들의 이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뜻깊은 뮤지컬인것 같고, 또 그러한 뜻깊은 활동을 로타리안들이 기획하신다는게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했던 것 같다.

글. 덕성 로타랙트 회장 황모빈

회원증강을 하는 목적과 방법

글. 총재 장세호



회원증강의 이유

회원증강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진짜 행복한 감동이 있는 로타리안이라면 회원증강을 하지 않고는 만족함을 가질 수 없다.

둘째, 세상을 변화 시키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면, 120만명은 세계인구 70억명 중 겨우 0.00015%다. 다시 말해 100만 명에 1.5명 꼴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 회원 숫자를 7배로 늘려야 겨우 10만명에 한 명 꼴이며, 70배로 늘려야 겨우 만 명에 한 명꼴이라는 뜻이다. 아무리 지도자들이 모였다 해도 터무니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더 많은 로타리안들을 요한다.

셋째, 우리가 사회의 문제의 해결책을 구하려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요한다. 그래야 실 수 없이 좀더 완벽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분야의 리더들을 로타리안으로 만들어 함께 협력하여 세상을 바꿔나가야 한다.

넷째, 로타리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특히 봉사를 하면서 쌓아온 우정의 울타리 속에서 서로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성장하려면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직업적 유대강화도 필요하며 글로벌 시각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훌륭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다양한 로타리안들을 영입시키고 그들과 교류를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

다섯째, 로타리 봉사활동을 하려면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머리로 기가 막힌 시대적 봉사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지갑을 열어 봉사활동을 후원하는 사람들 모두가 필요하다. 로타리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정신적 물질적 자원을 모아 다 함께 사회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의 균형과 조화를 만들려면 다양한 능력을 갖춘 회원들을 영입해야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봉사프로젝트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회원증강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 자신이 아직 진정한 로타리안이 아니거나, 아직 감동 있는 로타리봉사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 때 열심을 가지고 봉사했던 로타리안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꾸준히 새로운 봉사의 기회를 찾지 않고 감동이 있는 봉사활동을 접하지 않는다면, 전에 가졌던 열기도 사라져 자칫 늪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로타리 행복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며, 자신의 행복이 로타리를 통해 넘치게 될 때 회원증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클럽의 회원증강 방법

클럽의 회원증강은 클럽회장에게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클럽회장의 의지와 열정이 클럽분위기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클럽회장들은 어떤 스텝을 거쳐 회원들을 증강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 회장은 제일 먼저 클럽의 이사진들과 함께 클럽의 정체성과 방향을 정해야 한다. 클럽은 어떤 봉사에 초점을 맞춰나갈 것이며, 어떤 회원들을 모집하여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클럽의 정체성과 방향이 미래회원증강의 타격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클럽의 차별화와 이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연속성이다. 새로 영입된 회장은 이것부터 다시 한번 튜닝을 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
2. 어느 클럽이나 휴면회원들도 있고, 한 동안 나오지 않고 회비납부에 부담만 주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회비는 내도 주회는 참석을 잘 안 하는 회원들도 있다. 혹은 가만 놔두면 분명히 탈퇴할 회원들도 있을 것이다. 회장은 이런 회원들이 누구인지 명단을 작성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분석하여 그들을 다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거의 대부분 로타리 봉사활동에 대한 실망이 있었거나 아니면 클럽 내 그 누구 때문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 이유를 들기도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많은 경우 로타리 감동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다양하다. 봉사활동이 무의미하다 느끼거나, 가까운 시간에 어렵게 와보니 주회가 재미없기 때문일 경우가 많다. 어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대화를 나누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올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원로들 중의 한 두 사람을 포함하여 팀을 형성하여 움직이는 것도 좋다. 많은 경우 그들을 강사로 초청하는 것도 좋은 어색하지 않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다.
3. 클럽회장은 먼저 자신의 핸드폰에 적혀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신입회원으로 데려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회장이 먼저 시도한 후 임원들 나아가 회원들 모두에게도 부탁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통 회원들의 핸드폰 안에 이미 모든 클럽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미래회원들의 전화번호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 우선 클럽의 운영체계와 프로그램을 과거보다 더욱 재미있고 의미있게 조율해 보기를 추천한다.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회장이 시도해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할 것이다. 매년 그 무엇인가는 바뀌어 나가는 것이 정상이다. 일단 손님들이 와서 다시 오고 싶은 미팅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은 새 회원영입을 위한 날로 정해 모든 회원들이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오는 날로 정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그리고 새 회원을 초청한 회원에게 너무 클 경제적 부담이 안 되도록 비용을 조금 절감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웰컴 팀을 형성하여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것이다.



5. 두 명 혹은 세 명씩 짝을 지어 회원증강 팀들을 만들어 한 팀이 예를 들어 분기별 1명씩 스카우트하는 책임감을 주어도 좋다. 혼자 하는 것보다 클럽의 단결과 활성화를 위해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아이디어가 한 사람이 한 사람 데려오기 캠페인 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다.

6. 새 회원이 영입되면 반드시 새 회원 환영 팀을 구성하여 새 회원을 잘 관리해야 한다. 그들을 클럽 내 좋은 친구들을 소개해 주고 또 그들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고 또 지구 내 동호회나 여러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동이 있는 봉사에 참여 시키고 타 클럽활동이나 지구 월례회에도 참여 시켜 로타리에 대한 견해를 넓혀주는 동시에 로타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한다.

7. 클럽을 확장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예를 든다면:

A. 젊은이들을 위한 위성클럽

회원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친구로 형성된 위성클럽을 만들 수 있다. 신생클럽에 비해 단 8명만 있으면 가능하다. 신생클럽과는 달리 가입회비 15불을 안내도 된다. 그러나 위원장이라고 불리는 회장직이 있고 총무와 5대위원장들을 뽑아 마치 하나의 클럽과 같이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봉사활동을 함께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 클럽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필요로 한다.

B. 회원들의 Spouse들을 위한 위성클럽

회원들의 부인들이나 남편들로 형성된 위성클럽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본 클럽 회원들과 식사를 하며 주회를 하여도 된다. 단 로타리 교육은 철저하게 시키는 것을 권유하고 또 가능하면 봉사활동에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바로 이분들이 또 새로운 로타리안들을 영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장려해야 한다.

C. Honorable Members 위성클럽

클럽에 나이 드신 원로님들 중에서 주회에 자주 참석할

수 없으시지만 로타리에 계속 적을 두시고 가끔 나오시고 싶어하시는 분들로 형성된 위성클럽이다. 클럽회비를 따로 책정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다. 그리고 엄격한 클럽의 세칙을 다 다르기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방안이기도 하다.

8. 신생클럽을 만들 경우

클럽의 회원들 중에 신생클럽을 발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도 많다. 이럴 경우 클럽회장은 즉시 지구 총재에게 연락하여 신생클럽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고 그러한 능력을 갖추신 분을 지구의 총재특별대표로 모시고 신생클럽창립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게 한다. 지구의 대부분 훌륭한 명품클럽들은 많은 클럽들을 창립한 클럽들이다.

회원증강은 클럽발전에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클럽회장 혼자서만 할 수 없지만 클럽회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이 또한 회원증강이다. 클럽에 따라 인센티브를 거는 경우도 있다. 신입회원을 영입하는 분들에게 회비를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다. 혹은 새 회원 가능성이 있으신 분을 주회에 초청할 경우 참석비를 반으로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다. 각 클럽에 따라 가능한 많은 회원들이 많은 분들을 모셔 올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클럽의 회원은 클럽의 자산이다. 회원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여 해가 갈수록 더 많은 행복한 회원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91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로타리클럽” 적극적인 봉사와 위성클럽 확대를 통한 성장



한국 최초로 세워진 “서울로타리클럽”은 올해 91주년을 맞이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공식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기에 서울을 방문하는 전세계 로타리인들이 즐겨 찾는 클럽이기도 하다. 서울로타리클럽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와 한국 로타리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할 정도로 유능한 총재들이 12명 배출되었고, 많은 로타리 클럽의 창립에 기여를 하였다. 초기때부터 백낙준 연세대 초대 총장, 장면 제4대 부통령, 오재경 문화공보부 장관, 구평희 LG 회장 등이 클럽 회장을 역임하며 클럽의 기틀을 잡았으며, 한국 로타리 클럽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원들의 평균 연령은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SNS의 발달로 젊은 회원들의 수는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예전에는 로타리 클럽에 들어가서 최신 정보도 얻고 좋은 만남도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모임이나 단체도 급증하였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예전처럼 직접 안 만나도 페이스북이나 카톡을 통해서 네트워킹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로타리클럽은 현재 6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이중에는 25세에서 35세로 영어로 회의를 진행하



1지역대표 겸 사무부총장 **한태숙**
서울로타리클럽 전화장



는 서울영리더스 위성클럽, 젊은 직장인으로 구성된 “소셜비즈메이커” 위성클럽도 포함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 로타랙트, 외국어 대학 로타랙트를 후원하고 있으며, 일본의 오사카 클럽과 자매 클럽관계를 맺고 로타랙트들이 매년 양 국가를 방문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행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클럽의 홈페이지에 위성클럽의 홈페이지를 같이 구성하였으며, 페이스북을 강화하고, 로타랙트 임원은 물론 위성클럽 회원까지 함께 하는 카톡방을 유지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하고 있다. 서울로타리클럽 이취임식에 위성클럽의 회원들이 참가하는 가 하면, 공동으로 봉사활동도 기획하고, 최근에는 매달 서울역 근처에서 활동하는 400여명 노숙자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끝난 후에는 간단한 저녁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이화여대 로타랙트의 46주년 창립 기념행사가 있어서 회원들이 함께 참가하여 축하하여 주었다. 마침 로타랙트 선배들이 많이 참석하였기에 최근 국제 로타리 뿐만 아니라 3650지구에서도 로타랙트를 로타리 위성클럽으로 만드는 것을 중요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더니, 한 달 동안 로타랙트 선배들과 의견교환을 한 후 위성클럽 창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우리는 삶의 형태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클럽 역시 빠른 변화에 적응하여야 하며, 젊은 회원들의 영입과 다양한 형태의 위성클럽 창립을 통한 회원 증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성로타리클럽 문화예술을 통한 클럽 활성화



한성RC 직전회장, 지구의전위원장 손미선



한성 로타리 클럽은 회원 88명, 위성클럽(한성위너스)23명, 총111명으로 구성된 클럽이다.

매주 목요일 오찬 모임으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45~55명의 회원들이 12시에 모여 30분 동안 다과를 나누며 그간의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담소를 즐긴다. 한성은 주회 전 30분정도 티타임을 하는 '사랑방' 운영을 하고 있다.

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한성 로타리가 추구했던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매주 모이는 주회가 '기쁘고 행복하고 감동이 있는 주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타이틀을 "기쁘고 흥겨운 주회, 즐겁게 봉사하자"로 정하고, 회원들이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는데 그냥 왔다가 식사만하고 가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한성의 예술인들을 섭분 활용하여 매주 문화공연을 10~20분정도 개최하였다. 한성에는 음악가, 화가, 조각가, 도예가, 무용가 (발레,한국,현대무용) 체육인등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20여명 되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때때로 사회의 최고의 연주자들이 한성의 주회에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연주자들도 봉사로 가까이 연주하고 한성의 높은 음악적 수준에 만족하며 로타리를 배우고 갔다.

둘째, 최고의 회원영접

무엇보다 회원들이 주회장소에 들어오는 순간 최고의 영접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는 기분으로 만들자는 생각으로 10명의 사찰위원들을 뽑아 영접위원8명, 티타임관장 위원2명을 구성하여

브람스홀에 들어오는 순간 젊고 흰칠한 남녀 회원들이 사찰 띠를 매고 반갑게 웃으며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면 회원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입장하며 음악을 듣고 담소를 나눈다.

셋째, 야간주회, 연사주회, 야외주회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

분기별로 야간주회를 실시하여 술잔을 나누며 주회때 나누지 못한 우정과 친목을 나누는 것은 회원들 간의 단합과 친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또한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나 시사등을 연사주회를 통해 공감하며 교류한다.

그리고 봄, 가을에 남산산책 야외주회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감사함을 몸으로 체감하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넷째, 봉사의 기쁨

로타리안에 있어 봉사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봉사를 통해 회원들이 봉사의 즐거움을 알고 보람을 느끼며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한성은 안국동에 있는 "서울 시립 노인 복지관"에서 2,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배식과 설거지 봉사를 3년째 하고 있다. 11시부터 1시30분까지 설 새 없이 배식, 설거지, 잔반등을 치우려면 힘은 들지만 봉사 후에 먹는 주회음식은 꿀 맛 과도 같다. 봉사 후에 '여자만'이라는 한정식집에서 주회와 식사를 하고 맞은편에 있는 분위기 있는 전통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우정을 나눈다.

다섯째, 한성 장학금 지급

한성은 1년에 두 번 5명의 장학생을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하여 200만원씩 2,000여만원을 지급한다. 한성장학금은 한성의 빼어놓을 수 없는 한성의 자랑이며 자부심이라 할 수 있다. 원로회원님들이 만들어서 수 십 년간 내려오는 한성의 전통이다.

여섯째, 재단기부

한성은 2017-18년 회기때 PHF를 50구좌 작성하여 52구좌를 달성하였다.

목표보다 2구좌를 더 추가하였다. 50구좌달성은 생각만 해도 부담스런 숫자였다.

하지만 장충식 전 총재님께서 '이순동 총재 공식 방문' 때 힘을 실어 드리자하여 50구좌 목표를 하시기에 회장인 나로선 어떻게든 무리 없이 목표달성을 하는 것 이 최대의 관건이자 과제였다.

난 매주 회원들께 주회참석 안부 인사를 드렸기에 공리 끝에 신입회원들, 그리고 PHF하실 만 한 분들에게 전화를 하여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고 신입회원들에게도 PHF에 대해 설명해 드렸더니 의외로 너무나 긍정적으로 한 구좌 하시겠다고 하셔서 감사한 마음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장충식전총재님께서 솔선

수범으로 큰 힘이 되 주셨고 40여명의 회원 들이 가까이 동참한 결과여서 더 의의가 크다 할 수 있겠다. 지금도 너무나 회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일곱 번째, 회장 총무, 임원들 간의 화합.

나는 회장직을 맡으며 여성총무인 박미영 총무와 참 호흡이 잘 맞았다.

여성들이어서 오히려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말 그건 우려에 불과했다. 우린 서로 의논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서로 불만 없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었다.

회장, 총무가 일단 마음이 맞아 일하면 50%는 성공했다 할 수 있다, 거기에 합심하여 최선을 다 한다면 못 할 일이 없다.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불가능은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그 결과 한성로타리 클럽은 최우수 클럽상을 비롯한 8개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그리고 2018-19회기에 3,200여만원의 이익금을 남겨주었다.

회장의 헌신과 회원들 간의 분위기, 공감대를 조성하면 3650지구의 그 어떤 클럽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제 한성로타리 클럽은 김무일 회장님과 함께 더욱 변화되고 150명 회원증강 및 3650지구의 최고의 클럽으로 모범이 되며 발전될 것임을 확신하며, 3650지구의 모든 클럽들이 장세호 총재님의 '행복하고 감동이 있는 로타리'표어에 함께 동참하며, 변화되는 로타리안이 되시길 기원한다. 🌻



한양로타리클럽

젊은 회원 영입, 한양-연세 로타리 위성클럽 창립



2지역대표 최경순
한양RC 직전회장

모든 로타리 클럽의 회장님과 임원분들은 로타리의 심장은 회원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2017-18년도 한양로타리 회장을 맡게 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회원유지와 회원증강을 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회원영입이 쉽지만은 않았다.

회원영입을 하며 어려움을 겪는 중 한양로타리에서 46년 동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연세로타렉트를 생각하며, 봉사경험이 있고 로타리정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로타렉트 출신이야말로 최적의 영입대상이라는 영감이 떠오르게 되었다.

저는 연세로타렉트 졸업인을 대상으로 이메일, 전화, SNS등을 통하여 연락하였습니다. 그들은 로타리의 훌륭한 정신에는 공감했으나, 현재는 바쁘다며 다음을 기약하였다. 저는 고심 끝에 계획을 수정하였고, 현재 학생들이 로타렉트를 떠나기 전 로타리안으로 영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 후 연세대학교를 수 차례 방문하여 로타리활동에 대한 경험담과 로타리클럽의 문화와 분위기를 들려주고, 식사를 나누며 로타리를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하였다. 연고전과 MT 지원, 한양로타리 창립 62주년에도 학생들을 초대하여, 로타리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 등을 알렸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과 활동이 바탕이 되어 이들은 공감대를 보여줬고, 한양-연세로타리 위성클럽이 2017년 11월 12일 31명의 창립회원으로 탄생되었다. 그 후 3명의 신입회원이 추가로 영입되어 한양-연세로타리 위성클럽은 34명으로 증가하였다.

본 위성클럽의 탄생은 'Family Together' 지구 운영방침에 부응하여 차세대 청년들에게 로타리의 참여기회를 넓힘과 동시에 회원증강과 클럽활성화를 도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다.

한양-연세로타리 위성클럽은 차세대 로타리를 이끌 20대 젊은이들로 로타리활동에 참여하여 성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타 로타렉트 및 OB회원에게 좋은 전례가 될 것입니다. 비단 3650지구뿐만 아니라 한국로타리 역사상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지속적인 교류와 친교활동, 봉사활동의 공동수행을 통해 한양-연세 위성클럽회원들에게 로타리안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로타리가 세계적인 자원봉사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회원기반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2018-19년도 더욱 새로운 도전으로 세상에 감동을~초심으로 기적을 이룰 수 있기를 염원한다. ☀

서울무악 로타리클럽

클럽 5대 위원회 활성화



서울무악로타리클럽은 1995년10월27일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로타리의 최고 가치인 초아의 봉사를 실현하고 있다.

저희 클럽에서는 초아의 봉사 실현을 위해 회원의 증강, 참석을 항상 그리고 재정확보를 제1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봉사의 다양화, 시대 흐름에 맞는 강사 섭외, 소모임 활성화 그리고 5대 위원회의 월별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소모임은 회원들의 주거지와 사업장별로 나누어 점심 또는 저녁에 유대강화 및 사회적 관계망 확대를 위해 모이고 있으며, 나이별로 3그룹으로 나누어 교류를 활성화하여 주회 참석률 향상과 회원 증강을 확대해 가고 있다.

5대 위원회의 운영은 연간계획에 따라 연 2달씩 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연사 섭외 및 저녁주회 그리고 특별이벤트 등을 주관하여 회원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방식이며 회장단 역시 연 2달을 직접 운영한다. 이 방식의 장점은 위원회별로 각종 분야에서 선의의 경쟁이 가능하여 참석률과 회원들 간의 유대감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차기 회기에는 위원회의 회원을 바꿔서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역할을 이해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서울무악RC 직전회장 강석건



국제로타리 3650지구 2018-19 회원증강 현황과 목표

지구 회원증강 목표

항목	목표
신생클럽 창립	50개
회원증강 계획	1,000명(총 회원 3,000명 +)

회원증강 및 지구확대 세부목표

항목	목표 / 방법
클럽 회원 순 증강 %	60 rule(회원 순 증강 % = 60 - 현재 회원 수) 소규모 클럽(20명 이하)은 20명 이상 클럽으로! 대형 클럽(50명 이상)은 10% 순 증강
젊은 회원 영입 확대	1+1-10 campaign → 1명이 10살 어린 1명 데리고 오기 30세 미만 신입회원 지구회비 면제 40세 미만 회원을 영입한 회원의 지구회비 면제
로타랙트 회원	위성클럽으로 전환
여성회원 영입확대	현재 499명, 24%에서 30%이상으로 확대
신생클럽 창립	50개 이상 창립(Rotary Social Enterprise 포함)
Family Together campaign 연장	
클럽 회원 수 유지 클럽 표창	

7월 2일 총재 이취임식에서 78개 전 클럽 회장단이 무대 등단행사를 가졌다.



회원증강 목표 TOP 5 CLUB

순위	클럽	회장	목표인원	지역	비고
1	서울창덕	안상근	25	4	
2	한성	김무일	22	5	
3	한양	윤구홍	18	2	한양-연세 30명
4	서울코암	이영준	10	1	
4	서울RC	반문열	10	1	
4	서울회현	문성우	10	4	
4	서울리워드	이재욱	10	4	
4	서울사직	최홍진	10	6	
4	서울소통	주영대	10	6	
4	서울무악	김종문	10	7	

회원증강 및 지구확대 표창(안)

구분	시상 종류		내역
클럽표창	클럽 회원증강	회원증강 대상	최다 회원 순증 클럽
		최우수 클럽 상	회원 순증 20%이상 달성클럽
		우수 클럽 상	회원 순증 10%이상 달성클럽
	클럽 회원유지	최우수 클럽 상	회원 유지율 100% 클럽
		우수 클럽 상	회원 유지율 90% 클럽
	지구 확대	최우수 클럽 상	RI에 보고한 창립 회원수가 최다인 클럽
		우수 클럽 상	신생 클럽 창립을 스폰서한 모든 클럽
개인표창	회원 증강	최우수상	신입회원 최다유치 회원
		우수상	신입회원 3명 이상 유치 회원
	지구 확대	최우수 클럽 상	RI에 보고한 창립 회원수가 최다인 클럽
		우수 클럽 상	신생 클럽 창립을 스폰서한 모든 클럽
		기업 공로상	사회적공헌기업 클럽 창립

2018-19 국제로타리 3650지구 클럽 회원 현황

2018년 7월 1일 기준 회원수 2,098명 | 순증 -29명 | 2018년 8월 22일 현재 | 클럽 회원수 2,069명



지역	클럽명	회장명	회원 현황					현재 회원수 (2018. 8. 21 현재)
			2018. 7. 1 회원수	금회기 순증목표	입회	탈회	순증감	
1지역 한태숙	서울	반문열	27	10			0	27
	서울-영리더스 위성		24			14	-14	10
	서울-소셜비즈메이커		8				0	8
	서울용산	전금분	12	3			0	12
	서울신라	장희정	19	3			0	19
	서울장충	배성례	18	3			0	18
	서울남술	김서영	5	7			0	5
	서울코암	이영준	57	10			0	57
	서울뉴광진	이경희	13				0	13
	서울인터코리아	엄창섭	17	3			0	17
1지역 합계			200	39	0	14	-14	186
2지역 최경순	한양	윤구홍	72	18			0	72
	한양-연세 위성		34	30			0	34
	서울관훈	정휘영	65	6	1		1	66
	서울신세기	임광현	10				0	10
	아가페서울	김형주	16	5	1	2	-1	15
	서울리더스	강석희	16	9			0	16
2지역 합계			213	68	2	2	0	213
3지역 황순신	새서울	이현성	25	10			0	25
	서서울	김재용	10				0	10
	서울안암	김광두	12				0	12
	서울남산	윤승진	50	5			0	50
	서울상록	김진택	25	1			0	25
	서울예장	최신일	37	8	1		1	38
	서울아르떼	백연옥	9				0	9
	서울양정월악	김명덕	15				0	15
	서울하원	이정숙	7	3			0	7
	서울FINE	남윤재	7				0	7
3지역 합계			197	27	1	0	1	198
4지역 박상진	새한양	이세진	24				0	24
	새한양-누리 위성		19				0	19
	서울명동	김병직	11	1			0	11
	서울북악	김범생	19	2			0	19
	서울회현	문성우	75	10			0	75
	서울창덕	안상근	25	25	4		4	29
	서울인유	정한용	21	1			0	21
	서울LUMEN	박정원	2				0	2
	서울리워드	이재욱	20	10			0	20
	4지역 합계		216	49	4	0	4	220
5지역 연기영	동서울	김용범	10	7			0	10
	한성	김무일	88	22			0	88
	한성-위너스 위성		23				0	23
	서울흥인	최문휴	15	2			0	15
	서울옥수	류인득	9				0	9
	서울신용산	정지웅	10	2	4	2	2	12
	서울아리랑	류 청	14				0	14
	5지역 합계		169	33	4	2	-2	171

지역	클럽명	회장명	회원 현황					현재 회원수 (2018. 8. 21 현재)
			2018. 7. 1 회원수	금회기 순증목표	입회	탈회	순증감	
6지역 강무진	서울중앙	조상원	52	3	1		1	53
	서울정동	권영민	18	3			0	18
	서울보신각	김정균	12				0	12
	서울파고다	김성일	5	2			0	5
	서울사직	최홍진	24	10		4	-4	20
	서울예지	설영희	13				0	13
	서울마포	이동주	21				0	21
	서울소통	주영대	13	10			0	13
	서울C&C	김현숙	29	5			0	29
6지역 합계			190	33	18	21	-3	187
7지역 이영석	서울한강	김범준	59	3	1	4	-3	56
	서울무악	김종문	80	10			0	80
	서울무악-올타리		15			0	15	
	서울무악-아너스		20		0	20		
	서울장안	오규섭	25			0	25	
	서울화산	양경렬	28	2		0	28	
	서울장원	양규철	9			0	9	
	서울빛그림	박경철	10			0	10	
	서울낭만	강민성	40	1		0	40	
	서울호서	강일구	33	2		0	33	
7지역 합계			319	18	1	4	-3	316
8지역 박현영	서울남대문	이명선	17		1		1	18
	서울아미	이정희	14	6	2		2	16
	서울아미-예술사랑		4			0	4	
	서울새신라	김득영	17	2		0	17	
	서울강북	윤경식	17		1		1	18
	서울강북-랑코리아		15			0	15	
	서울늘푸른	서종렬	23		1	10	-9	14
	서울늘푸른-올타리		9			0	9	
	서울새노원	권연옥	14	6		0	14	
	서울미창재	박지철	21			0	21	
	서울원효	선우식	6			0	6	
	하이서울	유병조	30			0	30	
8지역 합계			187	14	5	10	-5	182
9지역 남궁근	서울성동	김용준	17				0	17
	서울도봉	김형갑	13				0	13
	한남	최승호	14			5	-5	9
	서울새문안	김주인	24				0	24
	새강북	안병석	26	1		1	-1	25
	서울북부	이영길	20	5			0	20
	서울노원	이현우	13				0	13
	서울위드	정영희	15				0	15
	서울새한빛	하현성	31				0	31
	서울새한빛 위성		14			0	14	
9지역 합계			187	6	0	6	-6	181
10지역 김학자	서울동남	문찬정	16	4			0	16
	뉴서울	김학자	4				0	4
	서울SRS	이수홍	25				0	25
	서울삼청	원장현	35	5		6	-6	29
	서울삼청 청계		51			0	51	
	서울문화	박찬희	41	1	1		1	42
	서울문화-한트		10			0	10	
	서울문화-에베레스트		21			0	21	
	서울동방	이형복	20				0	20
10지역 합계			223	10	1	6	-5	218
총 누계			2,098	-	19	48	-29	2,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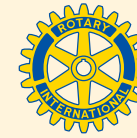


로타리 입회를 축하드립니다!

신입회원	추천인	신입회원	추천인	신입회원	추천인
					
서병태(서울문화) 1947년생 입회일: 2018. 06. 21 M Corporation 대표	이중원 전총재 (서울문화)	진교식(서울문화) 1958년생 입회일: 2018. 07. 17 닥터제이드(주) 대표	이희봉(서울문화)	이정해(서울관훈) 1971년생 입회일: 2018. 06. 19 중외정보기술(주) 대표이사	윤영석(서울관훈)

신입회원	추천인
	
김경락(서울관훈) 1973년생 입회일: 2018. 07. 31 (주)한화제약 대표이사 사장	정유진(서울관훈)

신입회원	추천인
	
이대용(서울아미) 1955년생 입회일: 2018. 08. 1 (주)콜링그룹 공동 대표이사	안병렬(서울아미) 1955년생 입회일: 2018. 08. 1 (주)타스씨앤엠 이사표이사



국제로타리 3650지구 클럽 봉사자금 송금 및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행 안내

국제로타리 3650지구는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86호(2010.3.31)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로타리 3650지구에서 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아래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인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필요 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과세 기간의 소득금액 × 100분의 30
- ◆ 법인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손금 산입한도액
 -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 100분의 10

봉사활동 기금, 3650지구 송금계좌 :

KEB하나은행 630-008116-430 (사)국제로타리3650지구

클럽 자체에서 주관하는 봉사 사업에 회원이 기부금을 내는 경우에는 일단 지구로 기부금을 송금한 후,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면 개인별로 영수증을 발행하고 클럽 회장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지구에서 재송금할 것이며, 봉사활동이 완료 되면 봉사한 내용과 영수증을 지구로 보내 주십시오.

•문의: 지구사무국 02-707-3650

◆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행 요청 양식(예) ◆

클럽명:

기부자(또는 기부 단체명)			금 액	비 고 (봉사활동 내용)	재송금 계좌번호
성 명 (단체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2018. . .

클럽 봉사자금의 송금과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합니다.

클럽 회장 _____ 서명

로타리재단: 우리와 함께

글. 로타리재단 전이사 **윤영석**
09-10 전총재, 서울회현로타리클럽



국제 로타리는 또 다른 1세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비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다 함께 힘을 합하여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자신에게 창조적 변화를 끊임 없이 실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라고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로타리재단은 지난 1세기 동안 로타리안 여러분들의 참여와 함께 모두 힘을 합하여 창조적 변화를 이루고 인류애의 실천을 위하여 37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습니다. 우리의 지역사회와 전세계에 이르는 지구촌 속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로타리에 주어진 기부금의 90%이상이 실제 봉사프로젝트에 직접 투입되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제적인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세계에는 3만5천여개의 로타리클럽들이 지속가능성을 갖춘 인도주의 봉사프로젝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부금으로 우리는 전세계 소아마비발병 케이스를 99.9% 감소시켰으며, 우리는 또한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며, 계속해서 평화를 구축할 차세대 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단돈 60센트면 한 아이를 평생 소아마비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로타리재단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50%는 3년후 다시 여러분의 지구에 돌아오고 그 중에 반은 지역사회를 위한 지구봉사에 쓰이고 나머지 반은 여러분의 지구가 참여하는 국제봉사프로젝트에 글로벌그랜트의 형식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그랜트로 지구의 기금이 쓰여질 때는 로타리재단에서 100% 매칭을 해주어 기금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으며, 또한 클럽이나 로타리안이 아닐지라도 제3기부자가 이러한 글로벌그랜트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는 기부금의 50%가 매칭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매칭 펀드는 여러분이 로타리재단에 기부하신기부금 중 지구로 돌아오지 않은 50%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 이유는 지역봉사와 국제봉사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지구촌에 정말 쓰여져야 할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로타리봉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로타리재단은 또한 이러한 글로벌그랜트 프로젝트들에게 매칭펀드를 주기 전에 3가지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첫째는 제안된 글로벌봉사프로젝트가 로타리 6대 봉사분야에 적절하고 실지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고, 둘째는 봉사의 효과를 실지 측정하여 확인할 수 있는가 이며, 셋째는 이러한 봉사를 지속 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입니다.

이렇게 로타리재단은 우리가 확실한 봉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검증해 주기도 하여 우리 모두가 기부하는 금액이 확실하게 유효한 목적을 위해 쓰여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로타리의 경우, 우리는 그 동안 많은 기부금을 로타리재단에 기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19개 지구들은 우리가 기부한 연차기부금의 50%를 3년후에 매년 받아 왔습니다. 그 중의 반은 우리가 글로벌봉사프로젝트를 위해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다수의 클럽들이 글로벌봉사프로젝트들을 개발하지 못해 배정된 상당 부분의기부금이 차기 년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에만도 우리 로타리 전체가 못쓰고 다음해로 이월된 금액이 189만불 정도 됩니다. (2018년 8월 1일 현재, 재단 통계)

만약 우리가 전액 사용했다면 로타리재단으로부터 189만불의 매칭을 받아 총 378만불 가치의 봉사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봉사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기부금을 활용하여 봉사프로젝트에 잘 쓰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타리 클럽회장들이 각 클럽의 봉사위원장으로 하여금 함께할 봉사할 파트너클럽도 물색하고 의미 있는 봉사프로젝트들을 구상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국제봉사프로젝트가 꼭 해외에서 일어나야만 하는것도 아닙니다. 한국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글로벌그랜트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타국에서 이러한 봉사



를 위한 파트너클럽들을 물색해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로타리재단의 시스템을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Wash in School이라는 프로그램을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개발하여 총 기부액을 초과하는 기금 활용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한국로타리도 신속히 배워 시스템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하여 로타리재단에 기부를 매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클럽이 국제 로타리의 심장이라면, 로타리재단은 국제 로타리의 심장과도 같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타리와 로타리재단은 쌍두마차의 두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로타리는 로타리이사들에 의해 운영이 된다면, 로타리재단 역시 Trustee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로타리는 1905년 2월 23일 폴 해리스와 세 친구들에 의해 창립되었으나 로타리재단을 12년 후 1917년 6월18일에 26달러 50센트의 자금으로 아치 클럽프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00년동안 총 47억불의 총 기부액을 성취하였으며, 현재 기증 기금액은 11.73억불로 4.18억불이 현금 그리고 7.55억불이 약정된 기증기금입니다. 그동안 총 37억불을 봉사프로젝트를 위해 지출 해 왔으며 폴리오 박멸 활동지원에만도 17억불 이상을 써왔습니다. 금년

부터 폴리오박멸 3개년 Count Down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15억불 중 총 12억불이 모금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나머지 3억불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활동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2016-17년도에 로타리재단의 지구보조금 건은 494건이었으며 2,580만 달러를 썼습니다. 같은 해에 글로벌보조금은 1,260건이었으며 7,290만달러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상에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속하여 로타리재단에 기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타리재단의 기금 2017-18년도 목표액은 총 3억8천만 달러입니다. 그 중에PHF, EREY와 같은 연차기금이 1억 3,700만달러, 폴리오플러스 기금이 1억 5,000만달러, 인다우먼트기금이 6,150만달러, 그리고 기타기금이 3,150만 달러입니다. 로타리재단은 재단의 미래를 위해 2025년까지 20억 2,500만달러를 목표로 세워 초점분야 고액기부인 시티브(6대분야 중 한 분야를 특정하여 내는 기부금)을 포함한 총 인다우먼트 기금을 모으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기금을 투자하여 나오는 수익으로 로타리재단의 미래봉사사업들을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기의 로타리 재단의 건전성과 안정성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타리재단은 국제 로타리의 심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로타리재단은 지난 100년동안 우리가 기부하고 기부한 기금을 바탕으로 소아마비를 비롯 빈곤, 교육, 수자원 그리고 질병 퇴치를 위해 또한 세계 평화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데에 근본이 되어준 우리들의 재단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육성하고 지원하여 새로운 세기에도 우리와 함께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우리는 재단의 활동과 역할을 잘 이해 하고 효율적으로 활용 함으로서 우리들의 봉사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3650지구는 봉사의 경험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으며 이러한 시스템활용을 잘 해 낼 수 있는 인재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좀더 열정을 가지고 재단의 기금이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 쓰여지고 있는지 열심히 배워 재단을 잘 활용하여 우리의 봉사활동의 영역도 넓히고 규모와 효율성도 더욱 높여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



The
Rotary
Foundation



The Rotary Foundation

로타리 재단에 기부를 원하신다면!!!

로타리에 기부하는 것은 1928년 설립된 로타리재단(TRF; The Rotary Foundation)에 기부하는 것으로 기부 최소 금액은 25\$이고 한국에서는 국제로타리 한국지국 재무부로 기부금과 기부금 신청서를 보내면 기부가 이루어진다.



글. 사무총장 **김 중**
서울문화로타리클럽

기부를 하려면 먼저 어떤 종류로 기부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로타리 기부금의 종류는 기부금을 3년 후 모두 사용하는 연차기금(Annual Program Fund)과 기부원금은 영구보존하고 그 수익금을 재단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인다우먼트 기금(Endowment Fund)과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는 제한기금(Restricted Fund)로 구분된다.



연차 기금
오늘을 지원



Endowment 기금
내일을 보장



제한기부
폴리오 플러스 기금 등
(End Polio Now)

연차기금은 기부금을 3년간 거치한 후 기부자의 해당 지구로 50%를 환원하고 나머지 45%는 세계 기금으로 5%는 운영을 위한 관리비로 사용하는 기금으로 PHF(Paul Harris Fellow)라고 불리우는 기부가 이 기금의 기부이다. PHF가 되려면 누적 기부금이 1,000\$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PHF 1구좌라 하고 이를 달성하면 PHF 증서와 배지가 수여된다. 이 기부금의 누적액이 2,000\$ 이상이 되면 1,000\$ 단위로 등급이 높아지며 해당 등급의 배지가 수여된다. 또한 매년 1,000\$씩 PHF를 약속한 폴 해리스 소사이어티(PHS; Paul Harris Society)도 있고 특별한 배지를 수여하여 대우하며 우리 지구에는 약 150여명의 PHS회원이 있다.

폴 해리스 헬로우(PHF / Paul Harris Fellow)



연차기금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액 1\$당 재단 표창 포인트(Foundation Recognition Point) 1점을 부여하며 1,000포인트가 되면 1명의 PHF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기부금을 내지 않았지만 피지명자는 PHF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하는 지명권한은 아이스버킷챌린지와 같이 릴레이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로 처음 기부를 하는 사람을 피지명자로 한다.

인다우먼트 기금에 1,000\$(1구좌) 이상을 기부하는 회원은 베네파터(benefactor)로 대우하며 처음 베네파터가 되는 회원에게 배지와 증서를 수여한다.

이상과 같은 기부금의 합계가 10,000\$가 되면 고액기부자(major donor)로 대우하며 크리스털 패와 배지가 증정된다. 고액기부자는 레벨1(Level 1)부터 레벨4(Level 4)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25,000\$미만은 레벨1, 50,000\$미만은 레벨2, 100,000\$미만은 레벨3, 250,000\$미만은 레벨4로 등급을 구분하여 대우한다.

고액 기부자(Major Donor)



누적 기부금액이 250,000\$를 넘으면 아치 클럼프 소사이어티(AKS; Arch Klump Society)회원이 된다. 회원이 되면 국제로타리(RI; Rotary International) 본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어

영구히 그 기록이 남게 되며 기념으로 크리스털 패와 배지가 수여된다. AKS회원도 500,000\$ 미만은 AKS 관리위원회 서클, 1,000,000\$미만은 AKS 관리위원장 서클,

1,000,000\$이상은 AKS 재단 서클 회원이 되며 로타리의 모든 회합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기부자들의 특별한 모임 중에 유증인회(Bequest Society)도 있다. 이는 유언장을 통해 사 후 기부를 약속한 회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다우먼트 기금에 최소 10,000\$를 기부하는 것이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약정하여 공증을 받게 되며 본인과 배우자의 이름이 새겨진 크리스털 패를 증정하여 기념한다.

모든 기부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재단기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표창기준이 있다. 첫 번째는 100% EREY(Every Rotarian Every Year)클럽 표창으로 모든 회원이 연차기금에 매년 100\$를 기부하는 것이다. 표창 기준은 클럽의 모든 회원이 최소 25\$이상이어야 하고 클럽 회원 개인당 평균 기부금액이 100\$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100% 재단기부클럽(Foundation Giving Club)표창으로 100% EREY 클럽표창이 연차기금에 제한되는 반면 이 표창은 모든 기부 형태에 관계없이 해당된다. 다음은 100% PHF 클럽 표창도 있어 모든 회원이 PHF가 되었을 때 표창하는 것으로 클럽의 지속기간 중 한번만 표창한다. 그리고 회기 내 1인당 재단기부 평균액이 해당 지구에서 3위 이내인 경우 표창하는 제도이다.

로타리 제1모토인 초아의 봉사를 다짐한 로타리안이라면 매년 어떤 형태이든 기부를 하여야 하지 않을까?

재단기부를 원하는 회원은 직접 국제로타리 한국지국에 연락하거나 클럽회장 혹은 지구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언제든지 그 절차에 대한 설명과 혹은 서류작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결심하기 바랍니다. 🌟



국제로타리 3650지구 2018-19년도 클럽별 재단 기부 현황



2018년 7월 31일 현재

지역 구분	클럽명	로타리재단(TRF)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2018. 6. 30 현재		2018년도 7월 중 기부액 (2018. 7. 1 ~ 7. 31)			2018-19년도 누계			3650지구 각 클럽별 종합 누계구좌		2018. 6. 30 현재		2018년도 7월 중 기부액		2018-19년도 누계		누계	
		PHF	인다우 먼트	PHF	인다우 먼트	Polio Plus	PHF	인다우 먼트	Polio Plus	PHF	인다우 먼트	봉사의 인 수	기부액 (단위:천원)	봉사의 인 수	기부액 (단위:천원)	봉사의 인 수	기부액 (단위:천원)	봉사의 인 수	기부액 (단위:천원)
1지역	서울	393	142	2			2			395	142	166	114,314					166	114,314
	서울용산	32								32		126	32,708					126	32,708
	서울신라	72	2							72	2	84	40,221					84	40,221
	서울장충	167	3							167	3	130	59,700					130	59,700
	서울남술	11								11		4	1,200					4	1,200
	서울코암	87								87		12	4,500					12	4,500
	서울뉴광진	15								15									
	서울인터코리아	3								3									
	1지역합계	780	147	2	0	0	2	0	0	782	147	522	252,643			0	0	522	252,643
2지역	한양	705	544							705	544	351	156,221					351	156,221
	서울관훈	418	7	8			8			426	7	326	392,244		2,100		2,100	326	394,344
	아가페서울	20								20		12	3,900					12	3,900
	서울신세기	4								4		6	1,800					6	1,800
	서울리더스	43								43		18	21,000					18	21,000
	2지역합계	1,190	551	8	0	0	8	0	0	1,198	551	713	575,165	0	2,100	0	2,100	713	577,265
3지역	새서울	277	56	1			1			278	56	192	223,108					192	223,108
	서서울	244	67							244	67	184	114,256					184	114,256
	서울안암	77	1							77	1	64	17,400					64	17,400
	서울남산	555	532							555	532	378	2,647,913					378	2,647,913
	서울상록	55								55		11	3,400					11	3,400
	서울예장	129	9	1			1			130	9	8	17,400					8	17,400
	서울아르떼	7								7									
	서울새노원	19								19									
	서울양정월악	1								1									
	서울하원																		
	서울화인																		
3지역합계	1,364	665	2	0	0	2	0	0	1,366	665	837	3,023,477	0	0	0	0	837	3,023,477	
4지역	새한양	154	210	1			1			155	210	58	68,000					58	68,000
	서울명동	42	1							42	1	75	48,800					75	48,800
	서울북악	284	5							284	5	257	114,100					257	114,100
	서울회현	243	81							243	81	105	67,100					105	67,100
	서울창덕	77		1			1			78		7	2,100					7	2,100
	서울인유	13								13		0	0					0	0
	서울루벤																		
	서울리워드																		
	4지역합계	813	297	2	0	0	2	0	0	815	297	502	300,100	0	0	0	0	502	300,100
5지역	동서울	233	2							233	2	119	208,947					119	208,947
	한성	698	5	2			2			700	5	184	217,832					184	217,832
	서울흥인	23								23		26	40,800					26	40,800
	서울옥수	61	1							61	1	36	17,700					36	17,700
	서울신용산	47								47		10	18,600					10	18,600
	서울아리랑	2								2									
	5지역합계	1,064	8	2	0	0	2	0	0	1,066	8	375	506,879	0	0	0	0	375	506,879

2018년 7월 31일 현재



지역 구분	클럽명	로타리재단(TRF)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2018. 6. 30 현재		2018년도 7월 중 기부액 (2018. 7. 1 ~ 7. 31)			2018-19년도 누계			3650지구 각 클럽별 종합 누계구좌		2018. 6. 30 현재		2018년도 7월 중 기부액		2018-19년도 누계		누계	
		PHF	인다우 먼트	PHF	인다우 먼트	Polio Plus	PHF	인다우 먼트	Polio Plus	PHF	인다우 먼트	봉사의 인 수	기부액 (단위:천원)	봉사의 인 수	기부액 (단위:천원)	봉사의 인 수	기부액 (단위:천원)	봉사의 인 수	기부액 (단위:천원)
6지역	서울중앙	620	81							620	81	164	198,650					164	198,650
	서울정동	120	3							120	3	87	41,500					87	41,500
	서울보신각	50	1							50	1	30	25,600					30	25,600
	서울파고다	27								27		4	1,000					4	1,000
	서울사직	33								33		7	2,400					7	2,400
	서울예지	65	8	1			1			66	8	33	17,100					33	17,100
	서울마포	10		1			1			11									
	서울소통																		
	서울C&C	1								1									
	6지역합계	926	93	2	0	0	2	0	0	928	93	325	286,250	0	0	0	0	325	286,250
7지역	서울한강	458	852	4			4			462	852	230	1,701,041					230	1,701,041
	서울무악	195	189	1			1			196	189	245	123,400					245	123,400
	서울장안	22	1							22	1	10	3,000					10	3,000
	서울화산	54	1	1			1			55	1	12	5,100					12	5,100
	서울장원	20	5							20	5	3	1,500					3	1,500
	서울빛그림																		
	서울낭만																		
	서울호서																		
	7지역합계	749	1,048	6	0	0	6	0	0	755	1,048	500	1,834,041	0	0	0	0	500	1,834,041
8지역	서울남대문	171	280							171	280	107	110,900					107	110,900
	서울아미	100	4							100	4	202	61,300					202	61,300
	서울새신라	52								52		16	4,800					16	4,800
	서울강북	195	1	1			1			196	1	79	54,400					79	54,400
	서울늘푸른	13	1							13	1	3	900					3	900
	서울미창재																		
	서울세노원	19								19									
	서울원호																		
	하이서울																		
	8지역합계	550	286	1	0	0	1	0	0	551	286	407	232,300	0	0	0	0	407	232,300
9지역	서울성동	233	1							233	1	177	264,600					177	264,600
	서울도봉	166								166		108	53,200					108	53,200
	한남	41	1							41	1	45	35,184					45	35,184
	서울새문안	137	6							137	6	65	40,300					65	40,300
	새강북	171	1	1			1			172	1	69	69,900		300		300	69	70,200
	서울북부	68								68		23	6,900					23	6,900
	서울노원	24								24		30	13,200					30	13,200
	서울위드	3								3									
	서울새한빛	4								4		1	1,200					1	1,200
	9지역합계	847	9	1	0	0	1	0	0	848	9	518	484,484	0	300	0	300	518	484,784
10지역	서울동남	92		5			5			97		110	30,802					110	30,802
	뉴서울	88	8							88	8	43	21,550					43	21,550
	서울SRS	28	1							28	1	16	6,300					16	6,300
	서울삼청	108	5							108	5	72	53,700					72	53,700
	서울문화	169	9	2			2			171	9	65	207,900					65	207,900
	서울동방	5								5		1	300					1	300
	10지역합계	490	23	7	0	0	7	0	0	497	23	307	320,552	0	0	0	0	307	320,552
총계		9,301	3,238	33	0	0	33	0	0	9,334	3,238	5,486	8,179,486	0	2,400	0	2,400	5,486	8,181,886



로타리재단 기부

AKS [3]

이동건(서울한강)
기부액
\$1,000
Total
\$1,004,003

AKS [1]

박영구(서울중앙)
기부액
\$1,000
Total
\$267,282

AKS [1]

윤상구(새한양)
기부액
\$1,000
Total
\$254,600

Major Donor [3]

민병국(서울)
기부액
\$1,000
Total
\$53,480

Major Donor [2]

이영호(서울강북)
기부액
\$1,000
Total
\$38,110

Major Donor [2]

이영석(서울한강)
기부액
\$5,000
Total
\$30,400

Major Donor [2]

이희봉(서울문화)
기부액
\$2,000
Total
\$25,110

Major Donor [1]

맹준호(서울동남)
기부액
\$1,500
Total
\$19,100

Major Donor [1]

박용현(서울관훈)
기부액
\$1,000
Total
\$18,120

Major Donor [1]

정휘영(서울관훈)
기부액
\$1,000
Total
\$14,220

Major Donor [1]

김길원(서울관훈)
기부액
\$1,000
Total
\$13,220

Major Donor [1]

장세호(서울)
기부액
\$1,000
Total
\$12,400

Major Donor [1]

김재환(서울관훈)
기부액
\$1,000
Total
\$11,330

Major Donor [1]

유승환(새강북)
기부액
\$1,000
Total
\$11,250

8stone

이건갑(서울관훈)
기부액
\$1,000
Total
\$9,020

8stone

배정철(서울관훈)
기부액
\$800
Total
\$9,020

7stone

윤영석(서울관훈)
기부액
\$1,000

7stone

김무일(한성)
기부액
\$2,000

6stone

김 중(서울문화)
기부액
\$1,000

5stone

이선재(서울마포)
기부액
\$1,000

4stone

안병석(새강북)
기부액
\$1,000

3stone

정유진(서울관훈)
기부액
\$1,000

2stone

김종문(서울무악)
기부액
\$1,000

1stone

박 인(서울동남)
기부액
\$1,000

PHF

배성례(서울장충)
기부액
\$1,000

PHF

이현성(새서울)
기부액
\$1,000

PHF

문찬정(서울동남)
기부액
\$1,000

PHF

안상근(서울창덕)
기부액
\$1,000

PHF

양경렬(서울화산)
기부액
\$1,000

PHF

최신일(서울예장)
기부액
\$1,000



로타리재단 기부

PHF



이정하(서울관훈)
기부액
\$1,000

PHF



오현미(서울관훈)
기부액
\$1,000

PHF



강혜련(서울관훈)
기부액
\$1,000



100% EREY CLUB 달성클럽 (2018년 7월)

서울동남RC (회장 문찬정) 각각 \$100

하인철 김대호 이재숙 박 인 신창만 조남이 김성중 오봉환
송경용 신동일 임승택 맹준호 안태상 은동신 이복흙 문찬정



100% EREY CLUB 달성클럽 (2018년 7월)

서울예지RC (회장 설영희) 각각 \$100

설영희 김서현 강무진 강월석 장명희 유선경 신난향
마상욱 이정신 김희성 나영아 김정호 신연자

EVERY
ROTARIAN
EVERY
YEAR

2018년 6월

서울RC 각각 \$100 / 총 \$5,100

신지연 오종열 백철호 한태숙 Samant, Shantanu Sean 구현 이동규 이홍수 전순재
강동우 Joe Dallao 안영옥 김영대 장성현 반문열 Clemente, Marco 최수련
김민정 민병국 오창권 Serodio, Dani Gamus 김지원 정서윤 김정민
De Vestele, Marc Schlip, Stefan 최예원 전성열 Mascot, Barry 손봉락
Vlug, Rob 안해인 고나영 유정열 Messecar, Devon 심재석 이세창 장세호 임동준
김관형 Fromm, Brice 김주현 송용의 이준일 심혜민 장유위 이성문 이춘경 김현정
Alan Timblich 최주연

EVERY
ROTARIAN
EVERY
YEAR

2018년 6월

서울남대문RC

남기순 정미옥 이명호 손필영 이명선 강민지
방기봉 조용섭 박현영 김재호 / 이상 10명 \$101.85
황의정 김진영 김정도 이성우 / 이상 4명 \$25.47
이만복 / 이상 1명 \$15.28

서울문화RC

이종원, 김효원 / 이상 2명, 각각 \$100

서울중앙RC

정병찬 정윤지 윤보균 송재엽 정영수 이수형 이완근 이구환 / 이상 8명, 각각 \$25



한국로타리 장학문화재단 기부

2018년 7월 1일 ~ 7월 31일

개인장학의인(9)



박용현(서울관훈)
기부액
1,200,000원
Total
29,750,000원

개인장학의인(2)

유승환(새강북)
기부액
300,000원
Total
7,200,000원

개인장학의인(2)

정휘영(서울관훈)
기부액
1,200,000원
Total
6,300,000원

개인장학의인(2)

김길원(서울관훈)
기부액
1,200,000원
Total
6,000,000원

개인장학의인(1)

윤영석(서울관훈)
기부액
1,200,000원
Total
3,000,000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더들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월간 리더스(LEADERS) 2018년 8월호에 장세호 총재의 표지 및 인터뷰 기사, 그리고 국제로타리3650 지구를 홍보하는 이미지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장세호 총재의 취임에 즈음하여 로타리 봉사정신과 3650지구의 2018-19년도 운영철학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잡지에 게재된 내용을 재편집하여 전재(轉載)합니다. <편집자주>



국제로타리 3650지구(서울) 장세호 총재 변혁을 이끄는 지도자는 시대적 위기의식과 비전을 함께 제시해야

지난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의 소아마비 박멸을 선언했다. 아직 2~3개 국가에서 소아마비 발병이 몇 건 보고되고 있으나 곧 지구상에서 소아마비가 완전히 사라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소아마비 퇴치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로타리(Rotary)다. 1905년 미국 시카고에서 결성된 민간 자선·봉사단체 국제로타리는 약 30여년 전부터 소아마비 퇴치 활동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로타리가 백신 지원 등 소아마비 퇴치에 쏟아 부은 돈만 약 16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한다.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가 설립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도 심장마비 퇴치를 위해 로타리에 거액을 기부한 바 있다. 200여 개국 약 123만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국제로타리는 한국에 19개 지구로 형성된 6만7천 명의 회원들을 지니고 있다. 그 중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서울 3650지구의 장세호 신임 총재를 만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는 수십 년 종사해온 미국 IBM, GE, ITT, XEROX 같은 글로벌기업들의 혁신경영체제를 바탕으로 이제 로타리와 우리 사회가 함께 가야 할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의 길을 제시했다.

3650지구 총재뿐만이 아니라 국내 19개 지구 총재단의 회장이자 역대 419명 한국 총재들의 단체인 한국로타리 총재단의 부의장이기도 한 장세호 총재는 신임 총재로 취임하면서 '회원 1천 명 증가, 백만 불 재단 기부' 등의 외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치적인 목표가 전부는 아니다. 물론 회원 수와 기부 액 등은 그가 달성하고 싶은 내부적 목표임은 틀림없으나 적어도 회원 수 늘리는 데만 급급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그가 진짜 추구하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다.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봉사의 개혁, 그리고 '사회적공헌 기업'과 '사회적공헌 전문인'들이 다함께 협력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로타리를 통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가치중심의 진정한 시대적 변화와 뼈를 깎아내는 듯한 본질적 뉘우침이 없는 참다운 미래지향적 변혁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장 총재는 변화의 리더는 시대적 위기의식과 비전을 동시에 제시하고 변화의 팀을 구성하여 짧은 기간에 성공사례를 구축한 후, 변혁의 바이러스를 조직 전체에 퍼트려 지

속적 변혁의 문화를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시대적 변화를 모르는 이유

우리가 창 밖의 풍경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창문에 비춰진 나 자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장 총재는 자신이 로타리안(Rotarian)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는 “로타리(Rotary)라는 자원봉사 조직은 이 험악하고 외로운 사회 속에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며, 사람의 마음을 더욱 순수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빛에 속한 조직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한 인도적 봉사와 사회적 변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과 실천을 훈련시키는 인생학교와 같은 곳입니다.”라면서 로타리 역시 이제는 바깥 풍경을 바라볼 때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가치전쟁시대... 리더는 교육과 실천의 선두자가 되어

그는 로타리의 본질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 나갔다. “참다운 봉사조직은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고 병든 사람에게 약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로타리안들과 함께하는 체험을 통해 스스로 감동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감사와 희망, 그리고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라면서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고도의 물질시대에서 가치중심의 시대로, 중앙적 혹은 분산적 시스템을 뛰어넘어 자율적 시스템 시대로, 그리고 집단적 혹은 개인적 사회체제도 뛰어넘어 과거에 체험하지 못했던 조직들과 사람들 사이에 무경계적 교류와 거래의 쇼핑물과 같은 고도의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플랫폼시대로 옮겨가는 혼동과 불안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매일수룩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꿈꾸는 로타리 같은 조직의 사명은 더욱 커져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가치전쟁의 시대입니다. 가치전쟁의 무기는 진정한 가치교육과 참다운 실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의 결과를 수습하기보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을 모아 다 함께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정체성과 자부심 그리고 사명감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고 그것이 곧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로타리 같은 위대한 업적을 지닌 봉사조직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행복공장과도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며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미래를 위해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워야

장 총재는 미래 사회를 개척하기 위해 우선 기성세대들이 먼저 “지금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메시지와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자신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사회가 미래를 개척하는 사회가 되려면 국가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문화, 그 외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과 부모들이 먼저 젊은 세대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모색해야만 합니다.”라며 말을 이어갔다. 장 총재의 젊은 세대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은 대화 속에서 더욱 깊어진다. 그는 “변화의 일선에 서 있는 젊은이들 중에 일부는 기성세대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재래적 사회 시스템에 오히려 발목이 잡혀 사회적 노예가 되어버리기 쉬운 상황 속에서 갈피를 못잡고 희망없는 미래를 바라보



면서 너무 쉽게 ‘흙수저, 금수저’ 논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라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젊은이들답게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주문한다.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이슈는 내가 어떤 수저를 갖고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그 수저를 가지고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느냐에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라면서 “아무리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그 수저로 먹지 못 할것을 먹고 사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고 역경을 이기고 일어나 사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가 기성세대에게 남기고 싶은 말 또한 예리했다.

“우리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외치지만 그들을 우리가 끌어안을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창문 밖 풍경에 대해 물어보아야 할 대상임을 깨우쳐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그래도 젊은이들에게 꼭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HOW가 아니라 WHAT입니다.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지켜온 시대와 세대를 초월할 수 있는 그 어떤 ‘순수한 가치’뿐입니다.

또한 그러한 가치의 예로 생명과 소통, 자유, 평등, 평화,

사랑, 나눔, 공존 등을 꼽고 싶습니다.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며 실패를 해도 다시 기회를 주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는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드러나
그는 진정한 리더십의 진가는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더욱 드러난다고 강조한다.

“과거에는 훌륭한 리더의 정의를 그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강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지금같이 급변과 위기로 가득찬 이 시대의 존경 받을 리더의 정의는 뜻하지 않은 역경을 만나 설사 넘어졌다 할지라도 넘어질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라면서 “남들과 차별화된 지혜로운 리더가 되려면 다시 일어나면서 자기가 왜 넘어졌는지를 깨닫고 같은 이유로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며, 나아가 자신의 실수를 남들과 솔직하게 공유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모두가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좀더 빨리 갈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라며 자신의 리더십과 철학에 대해 언급했다.

장 총재는 또한 “나에게 있어 인생은 마치 문장을 이어나가 그 어떤 스토리를 써 내려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인생



로타리(Rotary)라는 자원봉사 조직은 이 험악하고 외로운 사회 속에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며, 사람의 마음을 더욱 순수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빛에 속한 조직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한 인도적 봉사와 사회적 변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과 실천을 훈련시키는 인생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의 문장이 그 어떤 역경으로 말미암아 막힐 때 마침표를 찍고 포기하는 대신, 만약 우리가 콤마를 찍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라고 문장을 계속 이어나가 아름다운 스토리의 엔딩까지 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라면서 로타리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로타리는 변화의 기회를 창조하는 곳입니다. 인생에 있어 마침표 대신 콤마를 찍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인생에 있어 누구나 한 번쯤은 벼랑 끝에 서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나면서 버려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약이 없어 질병에 육신이 무너져가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배우고 싶어도 배울 기회가 없어 서러움에 가슴을 웅크리고, 또 어떤 이들은 죽는 줄 알면서도 목이 타올라 할 수 없이 오염된 물을 계속 마셔야만 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로타리안들은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일을 할 때 저는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봉사자 자신이 감동을 받아 더욱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기적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 치유가 되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며, 세 번째 기적은 봉사의 대상자들이 추후 남에게 감동과 삶의 변화를 주는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고, 이러한 감동의 기적들이 모여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로타리안이 된 이유

장 총재는 로타리안이 되어 총재까지 된 이유로 “로타리라는 글로벌 조직을 통해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123만 명 회원들과 함께 해낼 수 있고, 나아가 앞에서 언급한 인도주의적 봉사를 통한 감동의 기적들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으로 사회의 변화를 꿈꾸고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타리는 세계2차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주로 인도주의적 봉사활동에 주력해 왔습니다. 전쟁에 시달려 기진맥진한 사람들에게 평화의 꿈을 심어 주고, 전쟁으로 인해 가난과 굶주림, 질병과 전염병, 그리고 가족분해와 환경적 오염으로 상처를 입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소위 ‘봉대를 감아주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로타리의 본질은 원래 문제의 결과를 어루만지는 것보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와 국제 사회의 각 전문분야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의논하여 해결 방법을 실천에 옮기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 로타리의 기초가 되는 ‘로타리 강령’을 보면, 로타리안(공무원, 기업가, 자영업자, 전문가, 등)들은 ‘봉사의 이상’을 기업과 조직, 그리고 자신의 삶과 일터로 가지고와 모든 활동분야의 기초가 되게 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로타리안 기업들은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기업들이 되고 로타리안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직업인들이 되어 각각의 존재의 품위를 높이고 이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라는 엄청난 주문입니다.

나아가 로타리의 4가지 표준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1. 진실한가? 2. 모두에게 공평한가?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4. 모두에게 유익한가? 등 항상 질문을 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타

리는 분명한 목적(WHAT)과 방법(HOW)을 제시해 주고 있지만, 로타리안들은 우선 급한 인도주의적 봉사활동에 치중해 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아갈 미래사회는 물질시대를 초월한 가치중심의 시대입니다. 과거처럼 봉대를 감아주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감동을 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변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첫째 나 자신과 내가 속한 조직을 먼저 변화시키고, 둘째 모두가 함께 좀더 조직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로타리에 속한 모든 사회적 지도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로타리의 사랑과 생명의 가치 중심의 봉사의 이상과 4가지 표준을 준수하면서 사회에 공헌이 되는 결정과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저는 국제로타리의 ‘세상에 감동을(Be the Inspiration)’이라는 2018-19 테마를 바탕으로 ‘초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자’ 그리고 ‘내가 먼저 변화야 로타리가 변하고 사회가 변한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로타리안 기업가들은 자신의 기업을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기업으로, 그리고 로타리안 전문인들을 자신이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직업인이 되도록 노력하여 로타리의 새로운 역사(New History)를 써 내려가자고 모든 로타리안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읽는 비 로타리안들도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에 가담하여 모두가 함께 로타리안이 되어 봉사도 하면서 각자의 기업과 직업을 사회적공헌기업과 직업으로 바꿔 이 세상을 좀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리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장 총재는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 않았던 길이고,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것이 로타리의 원초적 본질입니다. 만약 로타리가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통해 거듭나지 못한다면 새 시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라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내비쳤다.

실제로 지난 20여년간 국제로타리 회원수가 120만여 명에서 정체되어 있다. 특히 선진국과 대도시에서 그세가 위축되고 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로타리의 평균연령이 빨리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급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기성세대들이 선

호하는 안정된 조직 플랫폼보다는 좀 더 목적 중심의 순간적 결집과 단기적 성취를 가능케 하는 훨씬 더 회원 중심의 유연성과 스피드를 갖춘 오픈 된 플랫폼을 선호한다.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장 총재는 로타리가 세계 최대의 자원봉사 조직이며 소아마비 퇴치운동 등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긴급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시도를 한국의 3650지구가 해내야 하고 또한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는 로타리 같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1 봉사조직도(로타리는 지난 10년동안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평가기관인 Charity Navigator로부터 10년 연속 최고평점을 획득하였으며 1불을 기부하면 91센트가 봉사 대상자를 위해 쓰여지는 가장 효율적인 봉사조직임) 시대적 변화에 선두자가 되어 미래의 젊은이들을 포용할 수 없다면 결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어린 나이에 유학의 길을 떠난 후 그는 일찍이 미국에 유학을 가 뉴욕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카네기멜론(Carnegie-Mellon)대학에서 전기공학 학사, 콜럼비아(Columbia)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석사와 MBA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Fortune 50기업들인 미국 IBM, GE, ITT, XEROX 등에서 부사장까지 지낸 기업기획 및 개혁 그리고 국제 마케팅 전문가로서 활약해 왔다. 그는 로타리에 가입한 후 기적적으로 4년만에 명실상부 한국로타리의 중주지구인 국제로타리 3650지구의 차차기 총재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2018년 7월1일부터 신임총재로 부임한 후 419명으로 형성된 한국로타리총재단의 부의장이자 2018-19년도 19명 총재단의 회장, 그리고 한국로타리 장학문화재단 이사, 한국로타리 청소년연합이사, 로타리코리아 이사, 그 외 주식회사 라이프맥스코리아의 회장 및 글로벌기업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또한 골프와 스키, 독서와 영화감상 그리고 작곡 등의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총재 이·취임식에 서는 ‘우리는 로타리안’이라는 로타리송을 작곡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장 총재는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즐겨 읽는 책은 성경이라고 한다.

이유는 66권으로 된 성경 안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쓴 여러 저자들의 서로 다른 영성과 시각 등

다른 생각들이 집필되어 있고 시대를 초월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한 주에 한 권 정도의 다양한 책을 읽으려고 노력한다.

그의 좌우명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자.”이다. 그것은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이며 삶에 있어 순수성과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로타리는 어떤 조직인가?

로타리는 국제로타리(Rotary International)와 국제로타리재단(The Rotary Foundation)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계 200여 국가에 123만 명의 회원으로 형성된 35,774개 클럽들의 연합체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자원봉사조직 중에 하나다. 한국에는 6만7천 명의 회원들이 19개 지구로 나뉘어 인도주의적 봉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에 위치한 3650지구는 한국의 최초지구로서 2100명의 회원들이 소속된 78개 로타리클럽들로 형성되어 있다. 그중에 장세호 총재를 배출한 올해 91주년을 맞이한 서울로타리클럽은 한국의 최초클럽으로서 1927년에 창립되었으며 한국의 유일한 영어로 미팅을 하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클럽이다. 국제로타리는 또한 18~30세를 위한 1만개의 로타렉트클럽들과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2만2천개의 인터랙트클럽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수없이 많은

리틀렉트라는 클럽들을 통해 봉사의 가치를 젊은이들에게 전파하고 실지 그들과 함께 이웃과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국제로타리가 다른 봉사조직들과 다른 점이 있다. 그냥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봉사는 물론 사회의 문제들의 해결책을 강구하여 함께 시정해 나가자는 것에 궁극적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로타리가 수없이 많은 세계지도자들을 배출해낸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프랑클린 루즈벨트, 제럴드 포드, 존 캐네디, 라놀드 레건 대통령들, 달에 착륙했던 우주인 닐 암스트롱, 천주교의 프란시스코 현 교황,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 오재경 전 문공부장관, 송인상 전 재경부장관, 그 외 여러 최근 장관들과 전 UN사무총장 반기문, 이동진 전 국제로타리회장 및 윤영석 전 대우그룹회장이자 로타리재단이사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법제, 정치계, 학계, 종교계, 문화계 등 다양한 사회의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모두 로타리안들이다. 이들 모두가 꿈꾸는 로타리 비전적 세상은 “다 함께 힘을 합하여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자신에게 창조적 변화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그런 세상”이다라며 앞으로 미래사회는 사회적공헌의식이 없이는 기업이나 개인 모두가 성공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mail : sdavidchang@gmail.com) 📧

Profile

학력 사항

△미국 Charles Evans Hughes 고등학교 졸업, △Carnegie-Mellon University 전기공학학사, △Columbia University 컴퓨터공학 석사, △Columbia Graduate School of Business 경영대학원 MBA마케팅, △GE Corp. Financial Management Program(미국GE 재무관리과정수료 및 감사자격수료)

사회 활동

△1995년 미주 케네디컷 주 한인회 40대 회장, △1995~2000년 한국국제교류재단 상임이사(The Korea Society), △대통령 직속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전 미국자문위원, △미국장로교단 3개 교회창립, △커뮤니티 및 국제선교봉사활동, △한국기독교산업인회 CBMC 경영이사, △한국도형심리 상담학회 수석이사, △글로벌기업마케팅 및 혁신자문 경력 사항
△미국 IBM Corp. 소비자 및 대형컴퓨터본부 부사장 (1993년~2000년), △미국 XEROX Corp. 본사 기획실 전무이사 (1988년~1993년), △미국 NYNEX(전 AT&T, 현Bell Atlantic) 마케팅 및 벤처개발 전무이사, △미국ITT Telecommunication Corp. 텔레컴뮤니케이션 마케팅이사 (1982년~1985년), △미국 BIZBANG GROUP USA 비즈뱅크 회장, △CITICO Holdings 시티코홀딩스 회장, △BIZ&LIFEMAX 비즈앤라이프맥스 회장, △㈜라이프맥스코리아 회장(현재)

전문 분야

△기업경영 혁신, △글로벌 마케팅, △벤처개발 및 창립, △기업컨설팅 및 교육 △행복학 강의



3대 총재(이순동 직전, 장세호 현, 박수부 차기)



총재단 기념촬영

링컨의 향기.. 그가 사랑 받는 이유

글. 총재 장세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역경은 견딜 수 있다. 인격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갖게 해보아야 한다 (Nearly all men can stand adversity, but if you want to test a man's character, give him power.)”
 “나에게 나무 베는데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 (If I only had an hour to shop down a tree, I would spend the first 45 minutes sharpening my axe.)”
 1861년 3월부터 1865년 4월 암살당할 때까지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다. 그의 리더십에 대한 책과 기사들만도 만개 이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15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은 링컨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위대한 국가의 리더로 만들었을까? 아니, 왜 그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불멸의 리더

링컨의 인생을 보면 성공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에게 실패는 있었으나 패배하지는 않았다. 그가 자라난 환경 하나만 보아도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는 1809년 2월 12일 미국서부 변방 개척지에 가난한 목수 토마스 링컨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의 틀에서 자라났다. 그의 어머니 낸시 행커스 링컨은 미혼모의 딸이었다. 둘 다 문맹이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27번의 실패를 통해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8세에 친어머니의 죽음, 15세에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고, 23세에 사업실패, 24세에 주 의회 선거 낙찰, 25세 파산, 26세 약혼녀 사망, 28세 신경쇠약으로 병원입원, 30세 주 의회 의장직 선거패배, 35세 하원의원 선거낙선, 36세 하원의원 공천 탈락, 38세 하원의원 재선거 낙선, 42세 둘째 아들 사망, 47세 상원의원 낙선, 48세 부통령 후보 낙선, 50세 상원의원 낙선, 53세 셋째 아들 사망 등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할 때 마다 그는 다시 일어났다. 리더는 쓸어지지 않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쓸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한다. 그는 실패를 거듭하다 단 한번에 대통령이 되어 인류역사상 노예해방이라는 큰 업적을 세운 지금까지도 존경 받는 리더의 상징이 되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길이 열리게 마련이다” 링컨이 한말이다. 그러나 정말 위대한 것은 링컨은 길이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역경의 고비를 이겨 냈다는 것이다. 그가 하도 실패를 거듭하자 그의 친구들이 그가 혹시 자살이라도 할 까봐 걱정이 되어 그의 집에 와서 면도칼 등 자살할 만한 도구들을 치웠다는 전설도 있다.

목적과 원칙이 있는 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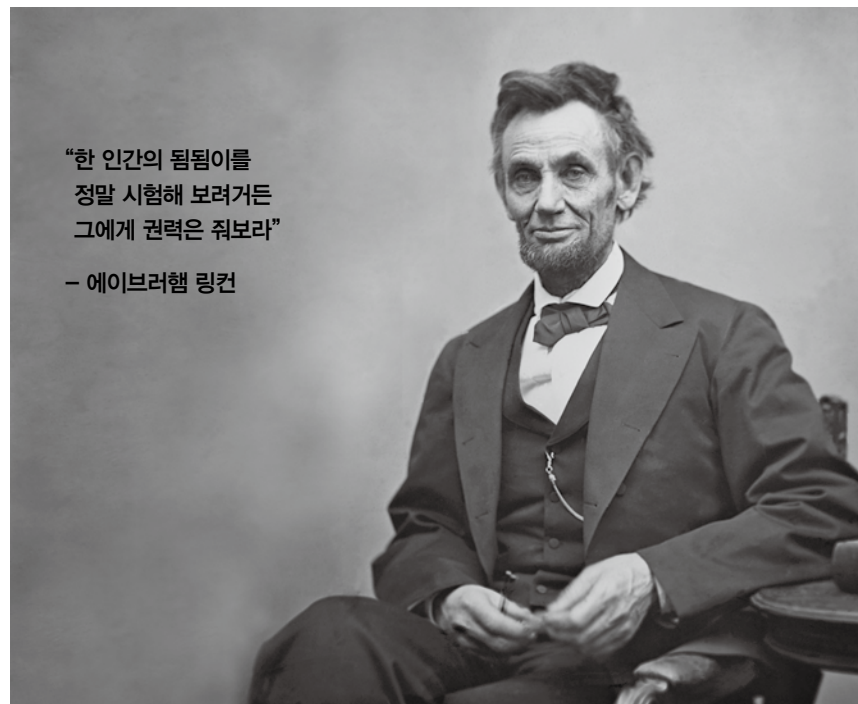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인생의 세월이 아니라, 그 세월 속에 담겨있는 당신의 인생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인생의 확실한 의미와 목적 가졌던 사람이다. 그는 또한 “승자는 구름 위의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라는 말을 남긴 매우 긍정적 사고를 지닌 사람이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 계급이 없는 국민과 국가 통합 이었다. 링컨은 국가의 장기적 분열과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노예를 해방시킴으로 국민의 계급제도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 때문에 그는 남북전쟁을 치러야만 했고, 결국 승리하여 미국역사상 노예제도를 폐한 존경 받는 지도자가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노예폐지를 위해 헌법수정안을 국에서 2/3 이상의 찬성표로 통과시켜야만 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에서 25 찬성표가 더 필요했다.

그는 이 목적을 위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원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다 받아야만 했으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여 성공시킨 사람이다. 목적을 위해 자기 자신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권력의 과시보다 자신의 꿈을 중요시 여긴 소중한 사람이었다.

링컨은 1861년 3월에 대통령이 된 후 곧 이어 1862년 9월 노예해방을 선언했다. 과감한 선포를 한 것이다. 이러한 선포는 곧 남북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는 이러한 결정을 하면서 “결과가 좋으면 어떤 비난도 문제가 안되지만, 결과가 나쁘면 천사 10명이 변호해줘도 소용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는 신념과 결단의 리더였다. 원칙 앞에서 남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인기작전을 쓰기보다, 그는 인간의 자유와 인권보호를 중시 여긴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변혁적 리더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의 정치적 스피치를 보면 정치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때로는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한적도 있지만, 일단 그가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된 이후에는 그는 자신의 본심을 확고하게 드러내어 그가 평생 추진해 왔던 진정한 국가통일과 노예제도 폐지 모두 함께 이루어 내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정치가이자 사회운동가였음을 알 수 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당시, 남부는 강경하게 노예제를 반대해 온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 심하게 반발하면서 링컨의 당선 직후 연방탈퇴를 선언하고 데이비드 제퍼슨을 남부연합의 대통령을 선출했다.



“한 인간의 됨됨이를
정말 시험해 보려거든
그에게 권력은 줘보라”
- 에이브러햄 링컨

반면 링컨은 어느 주도 미연방에서 탈퇴하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였고, 그 결과 그의 취임 1달만에 남북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 중 링컨은 재선에 성공하였고, 결국 1865년 남북전쟁은 남부의 항복으로 끝나게 되었으나, 종전 11일 후 링컨은 극장에서 극렬한 남부 지지자였던 배우 존 윌크스 부스에게 암살되었다. 이렇게 링컨이라는 큰 별이 순식간에 떨어지게 되자 종전의 기쁨은 링컨의 죽음이라는 슬픔으로 뒤 덮이게 되었다.

전쟁과 자신의 목숨의 값은 치렀으나 링컨이 남긴 미국은 링컨 이전 조지 워싱턴이 물려준 미국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워싱턴이 남긴 미국은 각 주의 연합체였을 뿐 한 나라라는 의식은 희박했었다면, 다시 말해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언제나 해체할 수 있는 연맹이었다면, 링컨이 물려준 미국은 온전한 하나의 나라이자 운명을 같이하는 진정한 미합중국 The United State라 할 수 있다. 영어로도 링컨 이전에는 United States are로 쓰였으나, 링컨 이후부터는 The United States is 라고 복수형에서 단수형으로 바뀌게 되었다. 링컨은 세상을 떠났으나, 미국은 남북통일과 노예해방이라는 링컨의 목적달성을 선물로 간직하게 된 것이다. 링컨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목적달성을 위해 큰 대가를 치른 신념과 결단을 실천한 변혁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과 공동체적 사명감을 가슴 깊이 새긴 지도자였음에 분명하다.

드림 팀을 형성할 줄 아는 리더

링컨은 혼자 개혁을 꿈꾼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드림 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싸우던 라이벌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파트너를 만들 줄 아는 대범한 리더였다.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줄 아는 강하고 겸손한 리더였음에 틀림이 없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도 무섭게 냉철한 시각으로 접근한 참 애국자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슈워드는 당시 링컨 외에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또 하나의 지도자였고 정치적인 입지도 탁월한 자였다. 링컨은 슈워드를 이기고 대통령이 된 후 그의 라이벌이었던 슈워드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슈워드는 몇달 후 링컨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조언자가 되었다. 또한 링컨이 무능하다고 비난해왔던 에드워드 베이치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대 당인 민주당의 지도자였으며 링컨을 강력하게 비난했던 체이시를 재무장관에 앉혔다. 이렇게 정당을 초월하여 국가발전을 위해 인재들을 모아 자신의 드림 팀을 형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었다. 그는 자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이나 경쟁심도 내려놓을 줄 아는 어떻게 보면 내면이 아주 강한 위대한 사람이었다. 지금 이 시대의 정치판에서는 보기 드문 지도자였다.

겸손하지만 재치를 갖춘 리더

링컨은 강한 심장을 가졌으나 겸손함과 재치를 동시에 지닌 사람이었다. 정치적 라이벌 더글러스와의 논쟁에서 더글러스가 링컨은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비난하자, “저한테 얼굴이 하나 더 있다면 잘 생긴 얼굴을 하고 나왔지 이 얼굴을 하고 다니겠습니까!”라고 받아 치자 링컨을 망신 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다 링컨의 반격에 도리어 할 말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링컨은 당시 빼빼 마르고 굉장히 매력 없는 사람으로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았고 거기다 남부의 특유한 사투리까지 약간 섞인 억양과 덩치에 비해 아주 가는 목소리를 가진 촌스럽게 생긴 사람이어서 정치가들이 그를 고릴라에 비유한 적도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링컨의 모습은 매우 인격이 높은 존엄성을 보여주는 이미지로서 우리는 인격이 사람의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한 명문 출신 상원의원이 “내가 지금 신은 구두도 토머스 링컨이 만든 것인데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되다니 역사에 남을 것이다”라며 대놓고 아버지 토머스 링컨을 언급하며 링컨을 조롱하고 비웃자 링컨은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의원님, 제가 그 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나게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도 구두를 조금은 다룰 줄 아니까 혹시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다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어깨너머로 배운 거니까요.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재치 있게 받아넘긴 사람이 바로 우리모두가 존경하는 미국의 오늘을 개척한 링컨대통령이다. 이것이 링컨의 향기... 그가 사랑 받는 이유다. 🌻



안중근의사의 삶을 통해 본 참된 리더십



글. 안중근의사기념관 관장 이영옥
서울삼청로타리클럽

진실한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힘을 가진다. 안중근 의사는 구한말에 태어나 이십 세기 초에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멸의 정신을 한국사상사에 남겼다. 매우 짧았지만 그의 생애를 면밀히 살펴보면 진정한 나라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안중근정신은 계승되어야 할 주요 한국 정신문화유산의 맥을 형성한다고 본다.

첫째로, 안중근 정신은 시대적 편견을 뛰어넘어 자신을 단련하는 것에 있다. 즉 대세를 의식하여 자아의 실현을 제한하기 보다는, 소수의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균형적인 사고를 취하는 것이 청년 안중근에게서 배울 점이다. 그는 십 대의 나이에 당시 조선 사회의 무인에 대한 편견을 개의치 않고 무예를 달인의 경지까지

숙달하였다. 조선시대가 문(文)을 중시하고 무를 경시함으로써 국방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주변국들의 끊임없는 수탈의 대상이 되었음을 생각할 때, 조선 정부가 안중근과 같이 문무 겸비의 정신을 존중하고 추구했다라면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식민지가 되는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국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어야만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위협을 막아내어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안중근 정신은 정확한 상황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할 것을 말한다. 안 의사는 망국의 위기 앞에서 백성을 계몽하는 운동을 시작하였으나,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하자 급박한 나머지 직접적인 의병운동으로 전환한다. 이와 같이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는 사회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셋째로, 안중근 정신은 생명을 중시하고 법을 존중하는 데에 있다. 그는 대한민국 의병 참모총장 활동 중, 사로잡은 일본 군인들을 적군 포로 처우법을 명시한 만국공법에 의거하여 과감히 석방하였다. 포로는 포로시설에 두었다가 종전 후 맞교환하는 법인데 의병부대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젊은 안중근의 이러한 이상주의적 원칙으로 인하여 의병대가 절멸당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그의 국제법 존중사상과 인도주의적 판단은 길이 평가를 받을 만하다.



넷째로, 안중근 정신은 나라의 위기 앞에서 자신이나 자기 가족의 안녕을 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행동으로 발휘된다. 그는 많은 재산을 물려준 조상과 소중한 가족을 돌아볼 겨를이 없이 오로지 나라의 독립과 아시아지역의 평화를 위하여 매우 어려운 결심을 한다. 즉 아시아의 불행한 상황을 주도적으로 야기한 이토의 처단을 결행한다. 그 결과, 그는 만 삼십 세라는 창창한 나이에 생명을 빼앗기고 가족과 가문의 고난을 초래하였지만, 평화로운 미래세계에 대한 비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돌보지 않는 위대한 정치가의 면모를 드러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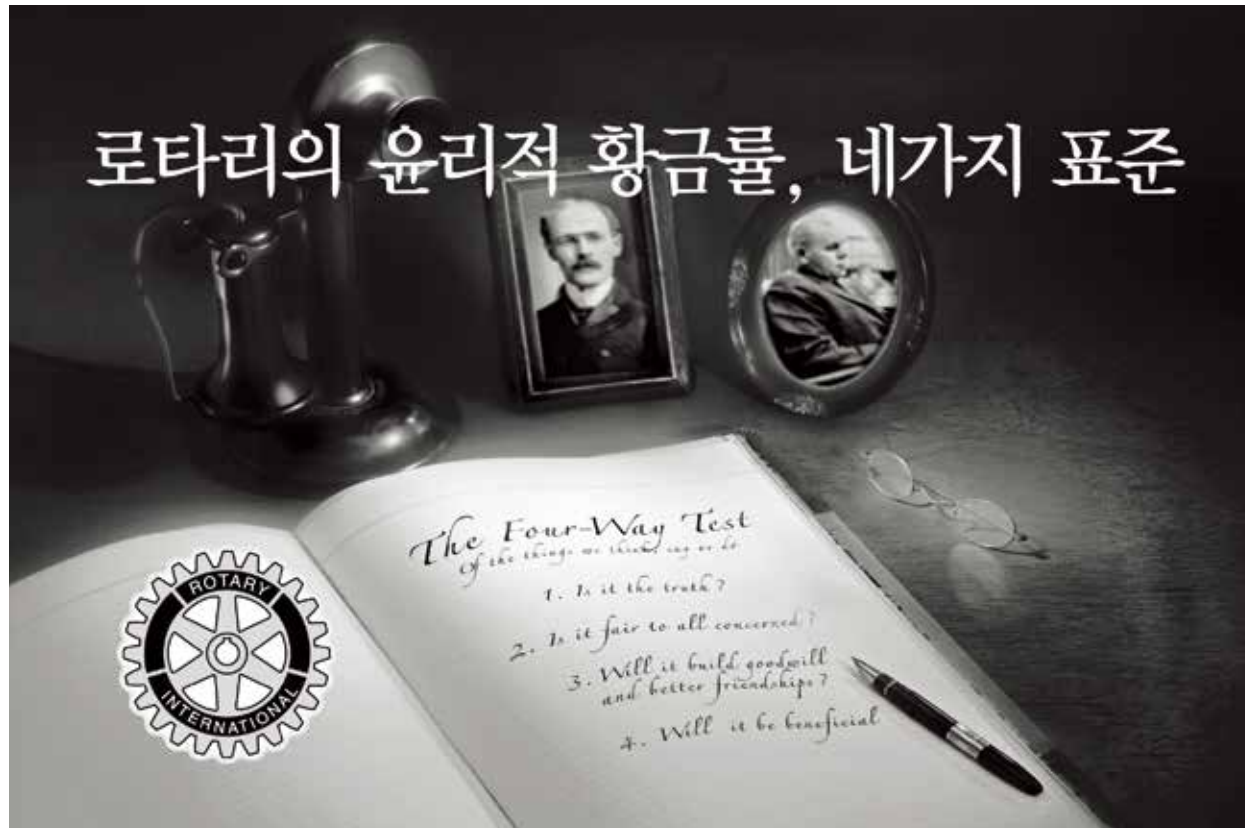
다섯째로, 안중근 정신은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일본이 원수의 조국이긴 하지만, 안 의사는 당시 일본의 선도적 능력을 인정하였다. 그의 미완의 저서 <동양평화론>에서 일본이 외국을 침략하여 강제로 지배하려는 그릇된 이토의 야욕으로 망국의 길을 치닫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미 근대화의 길로 들어서서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낸 일본이 조선과 청나라를 전인하는 아시아의 지도자적 존재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여순 감옥의 일본인 청년 간수 치바 도시치가 안의사를 살인범으로 몰아 감옥에 가두고 사형선고를 내린 자신의 조국 일본을 대신하여 사죄하자, 군인은 각자의 조국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이해해줌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큰 감동을 이끌어낸다. 안중근의 배려정신은 바로 다른 국민들과 공존하는 평화정신의 기본이 된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안중근 정신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만일 아시아 평화를 파괴하는 과수를 차단하고자 하였어도 그에게 그 목적을 성취할 능력이 없었다면, 시도는 무위로 끝나고 일본의 무자비한 박해만 끝어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 안중근은 계획한 바를 완벽하게 실행하는 능력을 연마해왔기 때문에 차질 없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진정한 정치가는 거대한 목표를 세우되 그를 뒷받침하는 실력을 또한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안중근 정신이 요구하는 바다.

안중근의 일생은 나라사랑과 평화수호의 정신을 후대에 전하고 있다. 사회와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안 의사와 같이 위대한 선대의 본을 발굴하고 선양하여야 한다. ☀



네가지 표준의 유래



국제로타리는 직업봉사를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943년 RI이사회는 “네 가지 표준”을 정식 로타리 표어로 채택하였다. 이 목적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는 질문이 아니고 각자의 양심에다 어필시키는 인간사회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윤리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네 가지 표준은 1954년 RI회장으로 취임되었던 허버트 테일러(Herbert Taylor)가 원래 자신의 직장생활에 적용하였던 표준이었으며, 그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네 가지 표준의 모든 권리를 국제로타리에 양도했다.

허버트 테일러의 기록에 의하면, 1932년 그는 한 알루미늄 회사의 임원단으로서 그 회사가 파산되는 것을 구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그 회사는 주방용품과 가정용품 판매회사였고 40만달러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상품은 우수한 제품이었으나 경쟁업체들도 만만치 않았고 오히려 경쟁업체들이 재정면에서 더 튼튼했다고 한다. 상대회사들의 인재들도 매우 우수했다. 이러한 문제와 장애를 앞에 두고 생각한 것은, 회사가 경쟁에서 이기려면 경쟁사가 따라 할 수 없는 직원들의 품성과 신뢰성과 봉사정신을 최우선으로 하고 첫째, 직원선정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둘째, 직원들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면서 훌륭한 인물로 자라나도록 배려해야만 한다는 방침이었다. 회사에는 많은 사업윤리규정들이 있었으나 너무 길고 실용성이 없었다. 그래서 쉽게 외울 수 있는 간단한 윤리적 기준을 찾았으나 만족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하다 어느 날 1932년 7월 그는 책상에 앉드려 하나님께 간단한 지침을 내려 주십사 하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흰 카드를 손에 들어 써내려 간 것이 바로 네 가지 표준이었다 한다.



네 가지 표준

1.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진실한가?
2. 모두에게 공평한가?
3.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4. 모두에게 유익한가?

네 가지 표준을 창안한 허버트 테일러 전 RI회장



이 표준을 자신의 책상 유리판에 갈아 놓고 몇 일 직장생활에 적용하려고 실제로 시험을 해 보았더니 비참하게도 첫 번째 표준인 “진실한가?”를 넘기기가 어려워 포기하려고 하다, 회사의 사장으로서 60일 동안 네 가지 표준에 의해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그동안의 수치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모든 가치관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였다고 한다. 그 후 여러 다른 종교(카톨릭, 크리스천 사이언스, 정통적 유태교, 장로교)를 가진 직원들에게 네 가지 원칙을 보여주었더니 모두 다 자신들의 종교적 이념과 일치될 뿐만 아니라 만약 이 표준을 실무에 적용한다면 더 큰 성공과 발전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 후 회사광고에서도 허위적 혹은 과장적 문장도 제거 되었고 경쟁사에 대한 비난이나 비평도 없어졌고 오히려 경쟁사의 신뢰와 우의를 얻게 되었으며, 고객들과 협력업체들과의 관계 그리고 직원들 사이의 관계도 크게 향상되었으며 그 후 20여년동안 네 가지 표준을 회사에 모든 사업 및 직원활동에 적용하면서 회사의 모든 부채도 다 갚고 100만달러 이상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게 되었으며, 회사 자산을 200만달러를 넘기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회사직원들의 품성이 매우 향상되었다고 한다. 그는 만약 이러한 네 가지 표준을 직장생활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든 삶 속에 적용한다면, 즉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좋은 부모, 좋은 벗,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2017-18 국제로타리 3650지구 클럽 회원 현황(최종)

로타리, 변화를 만들자 2017년 7월 1일 기준 회원수 1,992명 | 순증 111명 | 2018년 6월 30일 최종 회원수 2,104명

지역	클럽명	회장명	회원 현황					
			2017. 7. 1 회원수	금회기 순증목표	입회	탈회	순증감	현재 회원수 (2018. 6. 30 현재)
1지역 이홍수	서울	한태숙	30	6	9	12	-3	27
	서울-영리더스 위성		24				0	24
	서울-소셜비즈메이커				8		8	8
	서울용산	정진우	30	3			0	12
	서울신라	박성호	24	6		3	-3	19
	서울장충	박상훈	18	4			0	18
	서울남술	이기홍	5	11			0	5
	서울교암	이영준	65	5		8	-8	57
	서울뉴광진	유상재	28	8	1	16	-15	13
	서울인터코리아	엄창섭	17	3	3	3	0	17
1지역 합계			221	46	21	42	-21	200
2지역 이시훈	한양	최경순	84	16	12	24	-12	72
	한양-연세 위성				34		34	34
	서울관훈	윤영석	58	14	8	1	7	65
	서울신세기	정성엽	10				0	10
	아가페서울	임오혁	17			1	-1	16
	서울리더스	김진명	16				0	16
2지역 합계			185	30	54	26	28	213
3지역 서창우	새서울	이정수	25	5	4	4	0	25
	새서울-요네야마 위성		12			12	-12	0
	서서울	김재용	10				0	10
	서울안암	박범중	11		1		1	12
	서울남산	서상준	52	18		2	-2	50
	서울상록	박갑제	24	3	1		1	25
	서울예장	황순신	36	5	7	6	1	37
	서울아르떼	백연옥	18	7		9	-9	9
	서울양정월악	민경윤	13	2	2		2	15
	서울하원	이정숙	61		2	56	-54	7
	서울FINE	남윤재	21	3	1	15	-14	7
3지역 합계			283	43	18	104	-86	197
4지역 이세진	새한양	송원규	23	5	2	1	1	24
	새한양-누리 위성		18		1		1	19
	서울명동	김병직	12	2		1	-1	11
	서울북악	김범생	20	4	1		1	21
	서울회현	김관수	80	14		5	-5	75
	서울창덕	하종화	25	6	8	8	0	25
	서울인유	정한용	21	14			0	21
	서울LUMEN	박정원	2	8			0	2
	서울리워드	이재욱			20		20	20
	4지역 합계		201	53	32	15	17	218
5지역 소재선	동서울	김용범	13			2	-2	11
	한성	손미선	86	10	8	6	2	88
	한성-위너스 위성		23				0	23
	서울흥인	허진	18				0	18
	서울옥수	목남희	10	2	2	3	-1	9
	서울신용산	정지웅	12	7		2	-2	10
	서울아리랑	민지희	14	2			0	14
	5지역 합계		176	21	10	13	-3	173

지역	클럽명	회장명	회원 현황					
			2017. 7. 1 회원수	금회기 순증목표	입회	탈회	순증감	현재 회원수 (2018. 6. 30 현재)
6지역 김정균	서울중앙	김석규	47	4	8	3	5	52
	서울정동	변기태	18	2			0	18
	서울보신각	김정균	12				0	12
	서울파고다	임병해	8		1	4	-3	5
	서울사직	최홍진	22	16	5	3	2	24
	서울예지	김서현	24	3		11	-11	13
	서울마포	윤성주	21	4			0	21
	서울소통	주영대	13				0	13
	서울C&C	김박미경	25		4		4	29
6지역 합계			190	29	18	21	-3	187
7지역 안중원	서울한강	유한중	53	7	6		6	59
	서울무악	강석건	79	21	1		1	80
	서울무악-올타리			15		15	15	
	서울무악-아너스			20		20	20	
	서울장안	오규섭	25				0	25
	서울화산	신정수	23	7	5		5	28
	서울장원	양규철	9				0	9
	서울빛그림	박경철	10				0	10
	서울낭만	강민성	10	5	30		30	40
	서울호서	강일구			33		33	33
7지역 합계			209	40	110	0	110	319
8지역 송창섭	서울남대문	남연송	14		6	3	3	17
	서울아미	하양호	14	4	1	1	0	14
	서울아미-예술사랑		9			5	-5	4
	서울새신라	이관제	15	5	2		2	17
	서울강북	조성희	16	10	1		1	17
	서울강북-랑코리아		7		8		8	15
	서울늘푸른	한백현	23	4			0	23
	서울늘푸른-올타리				9		9	9
	서울새노원	권연옥	19			5	-5	14
	서울미창재	박지철	21				0	21
	서울원효	최덕규	20			14	-14	6
하이서울	유병조	30				0	30	
8지역 합계			188	23	27	28	-1	187
9지역 박광호	서울성동	이윤택	16	4	1		1	17
	서울도봉	박원기	13				0	13
	한남	김현덕	14				0	14
	서울새문안	박광호	24	6			0	24
	새강북	이진호	26				0	26
	서울북부	지규상	21			1	-1	20
	서울노원	이현우	20	3		7	-7	13
	서울위드	정영희	15				0	15
	서울새한빛	남궁근	22	8	9		9	31
	서울새한빛 위성			14		14	14	
9지역 합계			171	21	24	8	16	187
10지역 김 중	서울동남	박 인	17	5	4	5	-1	16
	뉴서울	이수홍	8			4	-4	4
	서울SRS	박명서	25				0	25
	서울삼청	최인훈	23	5	12		12	35
	서울삼청 청계			51		51	51	
	서울문화	김민태	42	7	10	12	-2	41
	서울문화-한트		10				0	10
	서울문화-에베레스트		23			2	-2	21
	서울동방	이형복	20				0	20
10지역 합계			168	17	77	23	54	223
총 누계			1,992	323	391	280	111	2,104



국제로타리 3650지구 2017-18년도 클럽별 재단 기부 현황(최종)

2018년 6월 30일 최종

지역 구분	클럽명	로타리재단(TRF)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2017. 6. 30 현재		2018년도 6월 중 기부액 (2018.6.1~6.30)			2017-18년도 누계			3650지구 각 클럽별 종합 누계구좌		2017. 6. 30 현재		2018년도 6월 중 기부액		2017-18년도 누계		누계	
		PHF	인다우 먼트	PHF	인다우 먼트	Polio Plus	PHF	인다우 먼트	Polio Plus	PHF	인다우 먼트	봉사의 인 수	기부액 (단위:천원)	봉사의 인 수	기부액 (단위:천원)	봉사의 인 수	기부액 (단위:천원)	봉사의 인 수	기부액 (단위:천원)
1지역	서울	387	141	5			6	1		393	142	166	114,314					166	114,314
	서울용산	32								32		126	32,708					126	32,708
	서울신라	71	2				1			72	2	84	39,621			600	84	40,221	
	서울장충	161	3	1			6			167	3	130	59,700				130	59,700	
	서울남술	11								11		4	1,200				4	1,200	
	서울코암	87								87		12	4,500				12	4,500	
	서울뉴광진	15								15									
	서울인터코리아	2					1			3									
	1지역합계	766	146	6	0	0	14	1	0	780	147	522	252,043			0	600	522	252,643
2지역	한양	690	544				15			705	544	351	140,921				15,300	351	156,221
	서울관훈	392	7	3			26			418	7	326	385,644				3,600	326	392,244
	아가페서울	19								20		12	3,900					12	3,900
	서울신세기	4								4		6	1,800				6	1,800	
	서울리더스	40					3			43		18	20,100			900	18	21,000	
	2지역합계	1,145	551	3	0	0	44	0	0	1,190	551	713	552,365	0	0	0	19,800	713	575,165
3지역	새서울	276	56				1			277	56	192	223,108					192	223,108
	서서울	242	67				2			244	67	184	114,256					184	114,256
	서울안암	77	1							77	1	64	17,400					64	17,400
	서울남산	537	532	1			18			555	532	378	2,642,513		300		5,400	378	2,647,913
	서울상록	55								55		11	3,400					11	3,400
	서울예장	121	9				8			129	9	8	17,400					8	17,400
	서울아르떼	7								7									
	서울새노원	19								19									
	서울양정월악						1			1									
	서울하원																		
	서울화인																		
	3지역합계	1,334	665	1	0	0	30	0	0	1,364	665	837	3,018,077	0	300	0	5,400	837	3,023,477
4지역	새한양	153	209				1	1		154	210	58	66,800				1,200	58	68,000
	서울명동	42	1							42	1	75	48,800					75	48,800
	서울북악	283	5				1			284	5	257	114,100					257	114,100
	서울회현	233	78				10	3		243	81	105	64,100				3,000	105	67,100
	서울창덕	76					1			77		7	2,100					7	2,100
	서울인유	12					1			13		0	0					0	0
	서울루멘																		
	서울리워드																		
	4지역합계	799	293	0	0	0	14	4	0	813	297	502	295,900	0	0	0	4,200	502	300,100
5지역	동서울	233	2							233	2	120	233,947					120	233,947
	한성	646	5	1			52			698	5	184	198,532			1	19,300	184	217,832
	서울흥인	23								23		26	40,800					26	40,800
	서울옥수	61	1							61	1	36	17,700					36	17,700
	서울신용산	47								47		10	18,600					10	18,600
	서울아리랑						2			2									
5지역합계	1,010	8	1	0	0	54	0	0	1,064	8	376	512,579	0	0	1	19,300	376	531,879	



2018년 6월 30일 최종

지역 구분	클럽명	로타리재단(TRF)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2017. 6. 30 현재		2018년도 6월 중 기부액 (2018.6.1~6.30)			2017-18년도 누계			3650지구 각 클럽별 종합 누계구좌		2017. 6. 30 현재		2018년도 6월 중 기부액		2017-18년도 누계		누계	
		PHF	인다우 먼트	PHF	인다우 먼트	Polio Plus	PHF	인다우 먼트	Polio Plus	PHF	인다우 먼트	봉사의 인 수	기부액 (단위:천원)	봉사의 인 수	기부액 (단위:천원)	봉사의 인 수	기부액 (단위:천원)	봉사의 인 수	기부액 (단위:천원)
6지역	서울중앙	601	81	2			19			620	81	164	198,350				300	164	198,650
	서울정동	120	3							120	3	87	41,500					87	41,500
	서울보신각	50	1							50	1	30	25,600					30	25,600
	서울파고다	27								27		4	1,000					4	1,000
	서울사직	32					1			33		7	2,400					7	2,400
	서울예지	65	8							65	8	33	17,100					33	17,100
	서울마포	9					1			10									
	서울소통																		
	서울C&C						1			1									
	6지역합계	904	93	2	0	0	22	0	0	926	93	325	285,950	0	0	0	300	325	286,250
7지역	서울한강	449	852	2			9			458	852	230	1,701,041					230	1,701,041
	서울무악	155	4		185		40	185		195	189	245	123,400					245	123,400
	서울장안	22	1							22	1	10	3,000					10	3,000
	서울화산	54	1							54	1	12	5,100					12	5,100
	서울장원	20	5							20	5	3	1,500					3	1,500
	서울빛그림																		
	서울낭만																		
	서울호서																		
	7지역합계	700	863	2	185	0	49	185	0	749	1,048	500	1,834,041	0	0	0	0	500	1,834,041
8지역	서울남대문	168	280	1			3			171	280	106	85,900					106	85,900
	서울아미	99	4				1			100	4	202	61,300					202	61,300
	서울새신라	51					1			52		16	4,800					16	4,800
	서울강북	188	1				6			195	1	79	54,400					79	54,400
	서울늘푸른	11	1				2			13	1	3	900					3	900
	서울미창재																		
	서울새노원	19								19									
	서울원효																		
	하이서울																		
8지역합계	536	286	1	0	0	13	0	0	550	286	406	207,300	0	0	0	0	406	207,300	
9지역	서울성동	233	1							233	1	177	264,600					177	264,600
	서울도봉	166								166		108	53,200					108	53,200
	한남	41	1							41	1	45	35,184					45	35,184
	서울새문안	133	6				4			137	6	65	40,300					65	40,300
	새강북	165	1	1			6			171	1	69	69,300				600	69	69,900
	서울북부	68								68		23	6,900					23	6,900
	서울노원	24								24		30	13,200					30	13,200
	서울위드	3								3									
	서울새한빛	2					2			4						1	1,200	1	1,200
	9지역합계	835	9	1	0	0	12	0	0	847	9	517	482,684	0	0	1	1,800	518	484,484
10지역	서울동남	90					2			92		110	30,802					110	30,802
	뉴서울	88	8							88	8	43	21,550					43	21,550
	서울SRS	28	1							28	1	16	6,300					16	6,300
	서울삼청	104	5				4			108	5	72	39,900				13,800	72	53,700
	서울문화	164	9	2			5			169	9	65	200,300				7,600	65	207,900
	서울동방	5								5		1	300					1	300
	10지역합계	479	23	2	0	0	11	0	0	490	23	307	299,152	0	0	0	21,400	307	320,552
총계		9,039	3,048	19	185	0	262	190	1	9,301	3,238	5,485	8,127,586	0	300	2	72,800	5,486	8,179,486



국제로타리 3650지구 2018-19년도 주요 일정 계획안

로타리 캘린더	2018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회원증강 및 확대	기본교육 및 문해력	경제 및 지역사회개발	로타리재단	질병 예방 및 치료
월례회의		8/24(목) 회원증강세미나 (조찬)	9/21(금) 재단세미나 (조찬)	10/19(금) 월례회의 (석간)	11/16(금) 월례회의 (조찬)	
주요행사	취임식				11/03(토) 김장봉사	12/6(목)~12/7(금) 제57년차 지구대회
클럽지원		8/30(목) 연사초청주회	9/29(토) 지구주관 봉사	10/25(목) 연사초청주회		
총재공식방문			1차			
총재초청 지역회장단 모임						
관련행사	7/17~7/19 로타랙트지구 연수회					
한국로타리	7/12 한국로타리 협의회			10/18 1차회원증강 연수회	11/7~11/9 한국로타리 총재단 연수회	

MEMO



2018년 8월 22일 현재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직업봉사	평화 및 분쟁예방	수자원 및 위생	모자보건	모자보건	로타리 동호회
1/18(금) 신년하례식 (조찬)	2/15(금) 월례회의 (석간)		4/19(금) 월례회의 (조찬)	5/17(금) 월례회의 (석간)	06/21(금) 표창식 (조찬)
		3/16(토) Rotary Day		5/25(토) Rotary Picnic Day	
1/28(월) 연사초청주회	2/16(토) 지구주관 봉사		4/25(목) 연사초청주회		6/8(토) 지구주관 봉사
		2차			
	2/22~2/24 2750 지구대회(꿈)		4/6 로타랙트지구대회		6/1~6/5 함부르크국제대회
	2/21 2차회원증강 연수회		4/14~4/18 규정심의회		

* 상기 일정안은 지구 사정에 따라 약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MEMO



2018-19년도 로타리안 분담금 납부 안내

2018년 8월 현재 로타리 환율 1,130원

구 분	금 액	납 부 처	송 금 처	비 고
지 구	지구 회비	130,000원 × 회원수	국제로타리 3650지구 사무국 T) 02) 707-3650 F) 02) 702-3650	※ KEB하나은행 166-890034-16904 〈예금주〉 (사)국제로타리 3650지구
	권장 납부기한 2018년 9월 30일			
국 제 로 타 리	R 회비	US \$32 × 회원수 × 로타리환율	국제로타리 한국지국 T) 02) 783-3077~8 F) 02) 783-3079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5호(미원빌딩) (07333)	※ 우리은행 189-04-100987 ※ 농협중앙회 044-17-000086 〈예금주〉 국제로타리 한국지국
	상반기 납부기한 2018년 10월 31일			
	하반기 납부기한 2018년 4월 30일			
	규정 심의회비	US \$1 × 회원수 × 로타리환율		(상반기(7월), 하반기(1월) 2회 납부 - 총 64달러)
	납부기한 2018년 10월 31일			
로 타 리 코 리 아	로타리코리아 구독료	13,000원 × 회원수	로타리코리아 T) 02) 730-2511 F) 02) 730-2515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930호(로얄빌딩) (03173)	농협 317-0005-3397-51 〈예금주〉 로타리코리아
	납부기한 2018년 12월 31일			
한 국 로 타 리	1) 한국로타리 청소년연합 4,000원 2) 한국 로타리 총재단회관 관리비 1,000원	5,000원 × 회원수	한국로타리 총재단 및 (사)한국로타리 청소년연합 T) 02) 738-1501 F) 02) 732-584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930호(로얄빌딩) (03173)	농협 013-01-043783 〈예금주〉 한국로타리총재단
	납부기한 2018년 12월 31일			

※ 연간 1인당 분담금 총액 : 약 220,000원 / 문의 : 3650 지구 사무국(02-707-3650)